

주민들이 들려주는 우리마을 이야기

즐거로운 마을생활



주민들이 들려주는 우리마을 이야기

즐거로운 마을생활





Contents

주민들이 들려주는 우리마을 이야기

즐거로운 마을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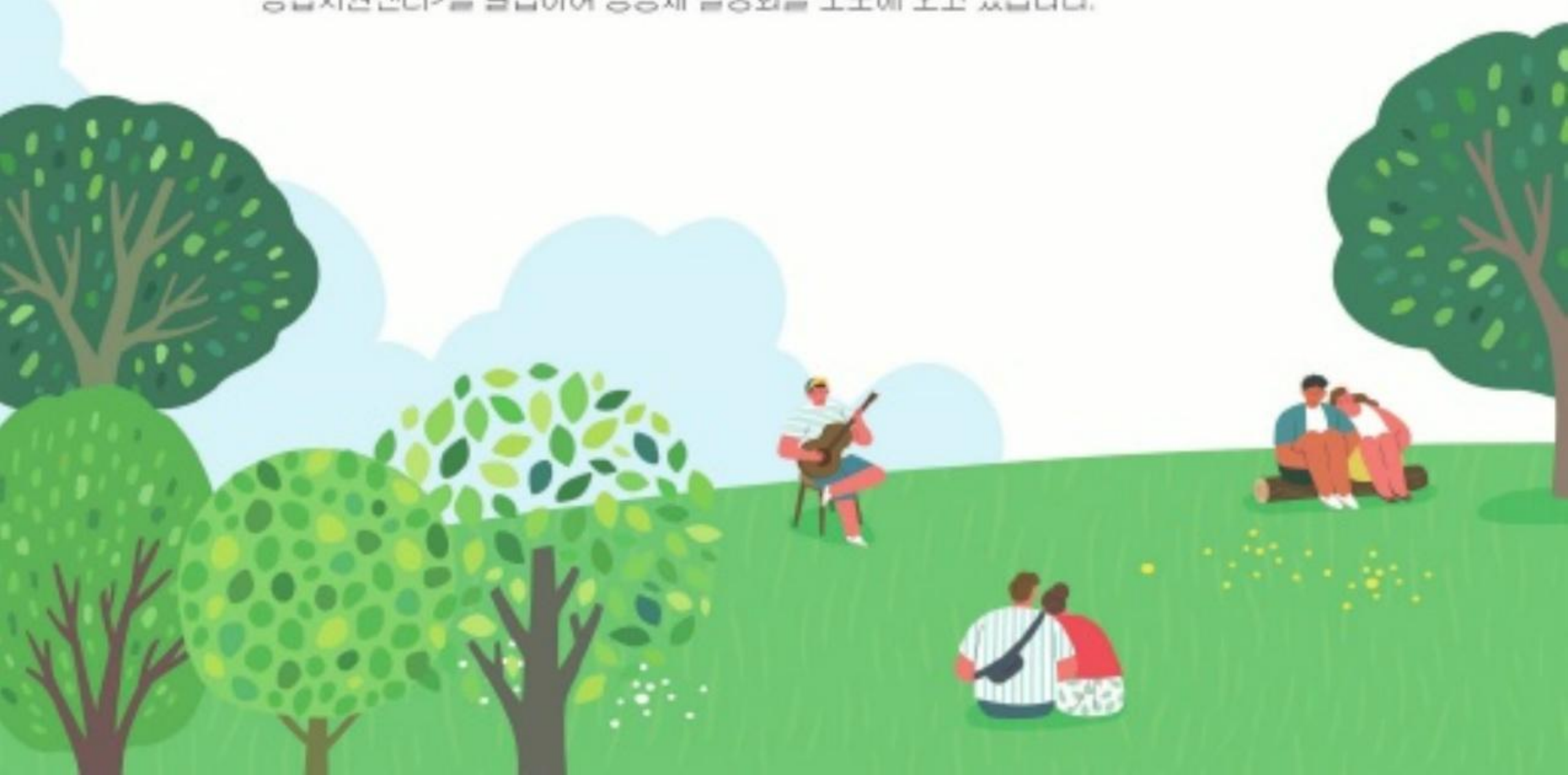
004	들어가는 말
007	2021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011	2014-2021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현황
014	2021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도
	강원도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018	춘천 뉴시티코아루아파트
028	영월 별마로 작은 도서관
040	춘천 별빛 사회적 협동조합
050	철원 함께 모이면 즐거운 도성
060	횡성 낭만서행
068	원주 마을안전 서포터즈
080	춘천 마중물
092	홍천 맹글 청소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100	태백 사랑의 베이커리 나눔
108	횡성 아띠맘
120	양구 양구군 번영회
126	동해 초록 도서관
140	고성 토성면 주민자치회
153	편집후기




들어가는 말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감염증에 대한 공포는 그간 우리 삶 곳곳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소통과 관계의 방식이 변화하였고, 이동과 교류의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감염위험에 따른 불안감과 심리적인 위축은 지역경제를 침체시켰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은 최고조로 치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회적으로 큰 위기이지만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공존하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마을공동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 면마스크를 제작하여 배포한 공동체,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해 발코니 음악회를 개최한 공동체, 밀키트와 구호물품을 만들어 전달한 공동체, 마을 공동텃밭에서 농산물을 수확하여 나누는 공동체 등 자선과 기부를 넘어선 높은 공동체 의식과 활동으로 K방역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지원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체 전달팀을 구성하고, <강원도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우수사례집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을공동체 활동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사례를 담았습니다. 2020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수행한 공동체중 우수활동사례 신청을 받아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례 13편을 선정하였습니다. <2021(2020) 슬기로운 마을생활> 에는 마을 공동텃밭, 공동육아, 마을돌봄, 작은도서관 등으로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우수 활동사례들을 담았습니다.

모쪼록 이 사례집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구성원,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여러분께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같은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마을, 행복한 강원도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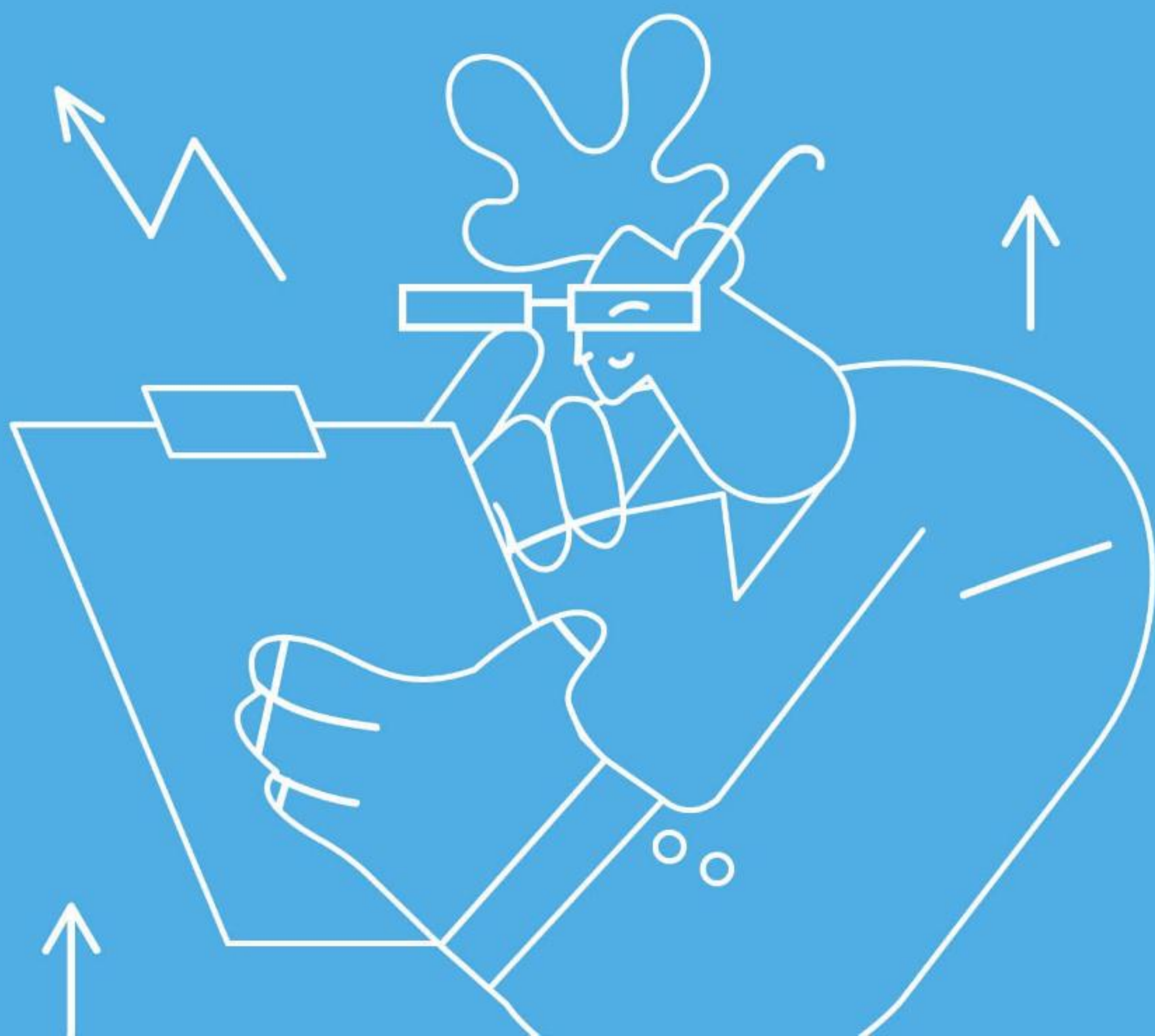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21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01 추진개요

🌸 지원단계

구분	성장 2단계	개화 3단계	기획공모 21년 신규
지원자격	기존 마을공동체 (10인 이상) * 활동 활성화·정착	자립준비 마을공동체 (15인 이상) * 자생·자립	공동체 연계 및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
선정규모	54개 내외	5개 내외	2개 내외
지원기준액 (자부담)	10백만 원 이내 (지원금의 5% 이상)	20백만 원 이내 (지원금의 10% 이상)	40백만 원 이내 (지원금의 10% 이상)
지원횟수	2회	1회	1회

🌸 지원대상 | 주민 주도로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마을공동체

- 🌸 가족구성원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경우 세대당 2인까지 인정
- 🌸 공동체 구성원은 동일 마을(리·통·아파트단지) 거주자가 60%이상 권장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사업비 등

※ 지원제외 : 단체 운영비(종사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등)

🌸 대상사업

사업유형	세부사업 예시
교육지원형	공동육아,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대상 인문학 강좌 등
문화예술형	문화행사, 플리마켓, 라디오, 마을신문 등 주민 기획·참여 문화예술활동
환경정비형	마을안전, 경관조성, 청소 등 주민참여 마을 내 환경 개선 활동
복지봉사형	아동, 노인, 다문화 등 소외되기 쉬운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활동
소득사업형	마을 내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경제활동
기획공모사업	마을 연계사업, 시군주도 경제공동체 활동

※ 지원제외 : 마을공동체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사업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일회성·행사성 사업, 정치·종교적 사업, 단순 친목·영리목적 사업, 일반강좌 운영 사업 등>

02 사업목적 및 방향

- 주민들이 공동의 마을의제와 지역 현안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마을 활력 증진 및 주민 자치 실현**
- 주민들 스스로 마을 발전 과제 발굴을 통해 일자리·소득창출 등 지속가능한 **자생마을공동체 실현**
-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여 단계별로 육성



03 신청단계별 내용

성장 2단계

- 지원대상** | 주민 10인 이상 기존 마을공동체
 - * '14년 ~ '19년 도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공동체
 - * '20년 까지 시군 자체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공동체
 - ※ '20년 마을자원조사 시범사업(5개소) 참여 공동체는 성장단계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54개 내외 (1개소당 10백만 원 이내) ※ 자부담 : 지원금의 5% 이상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사업비, 공동체 공간 환경 개선 사업비(지원금의 30% 이내)
- 지원횟수** | 2회
 - * '20년 단계 선정 시부터 성장 1회차로 인정
 - * 공동체 지속성을 위해 심사기준 및 운영성과에 따라 연속사업 우선 지원

개화 3단계

- 지원대상** | 주민 15인 이상 기존 마을공동체
 - * '20년까지 2단계(성장)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경험이 있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 받거나 등록된 법인·단체나 설립계획이 있는 공동체
- 지원규모** | 5개 내외 (1개소당 20백만 원 이내) ※ 자부담 : 지원금의 10% 이상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사업비 및 공동체 공간 환경 개선 사업비(지원금의 50% 이내)
- 지원횟수** | 1회 ※ 개화단계를 완료한 마을공동체는 향후 동 사업 지원 불가

🌸 기획공모 '21년 신규

- 🌸 지원대상 | 시군과 공동 기획사업 추진 가능한 공동체
 - ★공동체 연계협력사업, 기획공모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하여 마을의 일자리 및 소득증대로 이어 질 수 있는 사업 등
- 🌸 지원규모 | 2개 내외 (1개소당 40백만 원 이내) ※ 자부담 : 지원금의 10% 이상
-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의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사업비, 공동체 공간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금의 50% 이내)
- 🌸 지원횟수 | 1회

04 2021년 선정현황

🌸 2021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현황

- 🌸 성장단계 | 69개소
- 🌸 개화단계 | 2개소
- 🌸 기획공모 | 1개소

구분	2021			
	소계	성장	개화	기획공모
계	72	69	2	1
춘천	9	9		
원주	10	8	2	
강릉	8	8		
동해	6	6		
태백	5	5		
속초				
삼척	4	4		
홍천	5	5		
횡성				
영월	2	2		
평창	4	4		
정선	5	4		1
철원	6	6		
화천	3	3		
양구	2	2		
인제	1	1		
고성	2	2		
양양				

2014-2021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현황



01 사업현황 ('21. 7월 기준)

🔗 시·군별 총괄

구분	총계	'14	'15	'16			'17			'18			'19			'20			'21			
				소계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소계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소계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소계	추진공동체	대표공동체	소계	발아	성장	소계	성장	개화	기획공모
계	828	48	92	116	96	20	124	106	18	132	111	21	98	85	13	146	67	79	72	69	2	1
춘천	75	3	7	14	11	3	9	7	2	8	7	1	9	8	1	16	6	10	9	9		
원주	96	4	8	10	7	3	15	10	5	20	18	2	11	10	1	18	9	9	10	8	2	
강릉	84	5	10	7	6	1	12	9	3	14	13	1	10	9	1	18	6	12	8	8		
동해	79	5	11	13	10	3	17	14	3	9	7	2	8	7	1	10	5	5	6	6		
태백	53	3	6	6	5	1	7	6	1	6	3	3	5	4	1	15	12	3	5	5		
속초	18		1	3	3		4	4		4	3	1	3	2	1	3	2	1				
삼척	30	1	1	4	3	1	5	5		4	3	1	5	4	1	6	2	4	4	4		
홍천	56	2	5	6	4	2	9	8	1	14	11	3	5	4	1	10	3	7	5	5		
횡성	31	2	5	8	7	1	6	6		3	3		5	5		2	1	1				
영월	37	5	6	8	8		4	4		3	3		4	4		5		5	2	2		
평창	58	4	9	6	6		10	9	1	10	10		8	7	1	7	3	4	4	4		
정선	63	2	4	11	9	2	10	10		12	11	1	9	8	1	10	4	6	5	4		1
철원	56	3	7	5	5		7	7		13	12	1	5	4	1	10	5	5	6	6		
화천	18	3	2	2	2		1	1		2	2		2	1	1	3	1	2	3	3		
양구	19	2	3	3	2	1	2		2	2	1	1	2	2		3	2	1	2	2		
인제	10	1	1							2		2	1	1		4	3	1	1	1		
고성	40	3	5	8	6	2	6	6		6	4	2	5	4	1	5	3	2	2	2		
양양	5		1	2	2								1	1		1		1				

연도별 지원현황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계	개소	827	48	91	116	124	132	98	146	72
	사업비(백만 원)	5,272	240	508	675	700	750	720	963	716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개소	768	48	91	96	106	111	98	146	72
	사업비(백만 원)	5,182	240	508	655	670	710	720	963	716
소규모 주민모임	개소	59	-	-	20	18	21	-	-	-
	사업비(백만 원)	90	-	-	20	30	40	-	-	-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14년 대비 100%, '15년 이후 도 50%, 시군 50% 지원)

★ 소규모 주민모임 활성화 사업('16년 대비 100%, '17년 이후 도 50%, 시군 50% 지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과정 ('14년~'21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 구분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1차,2차)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마을공동체 (신규, 대표)	마을공동체 (발아, 성장, 개화)	마을공동체 (성장, 개화, 기획공모)

★ '14년~'18년 신규 공동체 발굴을 통해 양적 확대에 집중

★ '19년~'21년 공동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질적 성장 도모

★ 2021년부터 발아단계는 시군 자체사업으로 진행

0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연례반복 ※ 도지사 공약사항

🌀 사업종류 | 마을도서관, 텃밭가꾸기, 육아공동체, 마을환경개선 등

🌀 사업비 | 도비 50%, 시군비 50%

🌀 주요내용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주민 5인 이상)

🌀 추진절차



03 추진상황

- 🌻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제정 | 2014. 1. 3.
- 🌻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 | 2014. 3. 5.
- 🌻 마을공동체 비전선포식 | 2014. 3. 31.
- 🌻 「강원도형 마을공동체 모델개발」연구용역 준공 | 2015. 5. 27.
- 🌻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조례 제정 | 2018. 4. 13.
- 🌻 강원도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설립 | 2018. 8. 13.
-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현황(21년 현재) | 828개소 5,272백만 원(누적)



2021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도





성장

69개소



개화

2개소



기획공모

1개소

선정결과 | 72개 공동체



강원도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 ❁ 춘천 뉴시티코아루아파트
- ❁ 영월 별마로 작은 도서관
- ❁ 춘천 별빛 사회적 협동조합
- ❁ 철원 함께 모이면 즐거운 도성
- ❁ 횡성 낭만서행
- ❁ 원주 마을안전 서포터즈
- ❁ 춘천 마중물
- ❁ 홍천 맹글 청소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 ❁ 태백 사랑의 베이커리 나눔
- ❁ 횡성 아띠맘
- ❁ 양구 양구군 번영회
- ❁ 동해 초록 도서관
- ❁ 고성 토성면 주민자치회



춘천시

뉴시티코아루아파트

행복을 나누는 텃밭



지역명 춘천시 시농동

세부활동 텃밭 분양

지원기간 2019 ~ 2020년

참여인원 82명

01 공동체 형성과정

“함께 모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파트 단지에 어둠이 내리고 세대마다 불이 켜질 때 느끼는 것은 아래, 위, 옆으로 정말 가까이, 촘촘히 모여들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한다. 아랫집, 윗집, 옆집과의 거리는 벽 하나를 두고 가깝지만, 대부분은 그곳에 누가 사는지 별 관심이 없다.

그러다가 이웃집에 큰 관심을 두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층간 소음, 층간 담배 냄새, 층간 누수 등으로 나의 일상이 이웃으로부터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시점이다. 벽과 천장, 바닥을 공유하며 살다 보니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들로 이웃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면서 관계가 불편해지기 쉬운 구조가 아파트이다.

거주 영역이 분명한 단독주택과 달리 건물과 부대시설을 공유하며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는 가까이 모여 사는 만큼 다양한 갈등과 분쟁들이 늘 공존해있다. 물론 우리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춘천 강북 외곽지역에 있는 우리 아파트는 463세대 약 1,5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단지이지만 이곳도 2013년 입주 초기에는 공동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입주민들의 불만과 지연되는 하자 보수로 인한 불신이 팽배해있어 하루하루가 시끄럽고 편치 못했다.



공동체원들이 가꾼 텃밭

주 거주층은 미취학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들과 조용한 곳을 찾아 이사 오신 노 부부가 많아 활동 반경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세대가 많았으며 주변 환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아 편의시설도 미비하고 대중교통도 불편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렇게 아파트 분위기가 침체할수록 불평의 목소리는 커지고 다양한 갈등들이 발생하였다. 조용히 살고 싶어 이사 왔는데 위층 아이들이 뛰어 못 살겠다는 불평, 아래층 할아버지 담배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걱정된다는 아이 엄마들의 불만, 인근 농가에서 밤새 들리는 개 짖는 소리와 이웃집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불평 등 입주민 간의 갈등과 인근 농가 세대와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는 하자 보수로 인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대한 불신까지 추가되기만 했다.

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입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을 완화하고 입주 초의 혼란과 불신에서 벗어나 화합과 연대감으로 뭉쳐진 아파트로 정착육시킬 방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입주민들의 다양한 불만들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모종 분배

그런 갈등의 내면에는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와 무배려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알면 사랑하고 모르면 오해한다고 하지 않던가? 우리는 서로 알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좀 더 조심하면 너그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우선 서로 안면을 트고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마음을 열고 이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입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지속해서 만나 마음을 열고 즐겁게 지내며 소통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며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수렴해보기로 했다. 뜻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고 했던가? 방법을 찾기 위해 시야를 넓히자 아파트 주변의 쓰레기와 돌들이 가득한 비어있는 땅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02 공동체 활동의 시작

“함께 나누면 즐거움도 배가 돼요~!”



아파트 주변 사용하지 않는 땅의 소유주를 확인하면서 땅 주인이 아파트 시행사임을 알게 되었고 시행사와 협의해 우선 800㎡의 땅을 텃밭으로 일구어 입주민들에게 분양하기로 했다. 2014년 3월부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텃밭을 만들기 위해 104동 측면 쪽의 땅을 고르고 일구어 유희지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한 두락당 12㎡ 규모로 약 38개의 두락을 만들었다.

어렵게 만들어진 텃밭 분양을 시작하자 참여 신청 세대가 100세대를 넘어서 약 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청 세대가 모두 모여 번호 추첨을 하여 38세대가 2014년 텃밭 농부로 선정되었지만, 첫해 농사는 만만치 않았다. 대부분 한 번도 농사일을 해보지 않은 도시민이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텃밭만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농사 경험이 많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나서서 작물 파종 시기, 모종 심는 시기와 방법, 텃밭 관리 방법까지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도와주면서 첫해 농사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소통의 길이 열렸던 것은 젊은 세대와 연로한 세대가 텃밭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공동체원들이 재배한 호박



텃밭에서 작물 수확하는 모습

03 공동체 활동의 성과

텃밭이 아파트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들



그 후 2018년까지 텃밭 분양이 계속되었고 텃밭으로 인해 마을 분위기는 많이 변했지만,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 외에 마을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는 확장되질 못하고 있었다. 텃밭 운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무렵인 2019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 사업 공동체로 선정되었다. 텃밭에서 씨부리고 키워낸 공동체 의식이 전체 입주민에게 확산하여 건강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결과물을 수확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우선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 그동안 해소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고 텃밭은 더욱더 즐겁고 아름다운 마을 놀이터가 되었다. 지원 사업을 통해 텃밭 두락마다 예쁜 번호 푼말을 설치하고 경계에는 꽃을 가득 심어 꽃밭을 만들었다.

그리고 6월 초 햇살 좋은 날 텃밭에서 수확한 쌈 채소를 나누는 가든파티를 열고 작은 음악회를 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텃밭 농사를 짓지 않는 전체 세대까지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는 전환점을 가지게 되었다.



텃밭 행사



텃밭 가든파티



일년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모종 심기 후 단체사진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대면 행사가 취소되는 등 공동체에 불안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깊이 드리웠지만, 텃밭이 또 다른 의미의 큰 위안을 선사한 한해이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져버리고,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텃밭의 고구마는 참 열심히도 살았더라고요~ 덕분에 오늘도 구운 고구마의 달달함으로 하루를 달래봅니다."라는 텃밭 참여자의 참여 후기와 같이 우리는 갇혀 버린 일상 속에서 텃밭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한 해였다.

특히 노인 가구의 열정적인 참여는 전체 텃밭에 활기를 불어넣어 더욱더 풍요로운 텃밭을 만들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04 공동체 활동을 마치며

“텃밭에서 확장되는 지역공동체!”



이제는 텃밭 없는 우리 마을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텃밭이 있는 아파트라는 소문이 나면서 텃밭 때문에 이사를 왔다는 입주민이 있을 정도로 아파트 텃밭 활성화는 입주민의 거주 지속 의사를 높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년간 텃밭 분양을 계속하면서 느낀 것은 텃밭에 참여한 햇수가 많을수록 더욱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많아지며 앞으로도 지속적 참여 의사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우리 아파트 텃밭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견인한 것은 수년간 빠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농사에 참여한 거주자였다. 또한, 이러한 참여자들이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한 관심 및 참여도도 높고 지역봉사에도 앞장서며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애정과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로 볼 때 아파트 단지 내 텃밭은 먹거리를 재배하는 물리적 공간의 역할도 하지만 그보다 공동체와 지역사회로까지 긍정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감정적 소통의 공간으로 더욱더 의미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텃밭 주변 화단조성



텃밭 준비하는 공동체원들



어린이들이 텃밭에 나와서 재배하는 모습

우리가 사는 공간인 주거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내가 속한 지역사회와 우리 전체 사회에 대한 애정이 확장되고 지역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 텃밭이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역할을 다 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05 공동체 구성원들의 “활동 소감”



백0우 님

텃밭을 가꾸면서 상추, 고추, 망콩, 열무 등 여러 가지 식물들이 사랑과 정성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며 생동감과 생명력의 고귀함, 그리고 이웃 텃밭 친구가 되어 일상사 일어나는 일을 주고받으며 친목도 도모하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협동심을 기르며 화합하며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데 크나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심0용 님

오랜 아파트 생활을 하며 도심 속에서 텃밭을 직접 가꾸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직접 고령을 이루고 모종을 심고 물을 주며 풀을 뽑는 과정에서 조금씩 자라는 채소를 보며 즐거움에 주말은 물론 퇴근길에도 잠시 들르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시작한 텃밭 가꾸기 사업은 농사에 필요한 서로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이웃 간의 수확물을 나눠주며 남녀노소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어 이웃 간의 친목 도모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는 건강한 먹거리로 우리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고, 코로나19로 외부 활동과 모임이 단절되는 상황에서 이번 텃밭 가꾸기 사업은 답답하고 우울한 우리 가족의 유일한 즐거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박0자 님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을 활짝 열고, 텃밭을 추첨하는 4월은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힘들여 퇴비를 펴서 흙은 뒤집고 망콩, 토마토 등 예쁜(꽃보다 더) 종들을 심으며 만날 때마다 작고 여린 몸짓으로 하늘거리며 나를 반깁니다.

자주 방문하며 그곳에서 정겨운 이웃들과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하고 커가는 식물들을 보며 마음의 기쁨을 느낍니다. 소중한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관리소 직원분들, 강원도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텃밭으로 인하여 일 년 내내 행복합니다!

이이근 님

아파트 공동 주거에서 이웃 간의 친교나 교제의 기회가 잘 없다. 그래서 간혹 엘리베이터 등에서 만나면 서로 서먹해 하거나 겨우 눈인사 정도로만 하게 된다. 그런데 텃밭 관리를 하게 되면서는 서로 먼저 인사하고 작물 영농에 대해 말을 나누고 자연스러운 교제가 큰 활력소가 된다. 더욱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적은 경비지만 지원받으니 더욱 관심이 크며 모두 대단히 만족한다.

정이수 님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기도 힘들 만큼 무관심하게 바쁜 일상을 사는 우리지만, 요즘 이곳, '뉴시티코아루' 아파트는 북적북적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듯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빈 땅에 '주말농장'을 분양해 주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입주민들이 나와서 직접 키운 농작물 자랑이 쉴 새 없습니다.

바로 옆 텃밭은 무엇을 키우는지 기웃거리다 보면 어느새 안부를 묻고, 지나가다 반갑게 인사하는 '이웃사촌'이 되어있었고, 아이들은 친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가족 간에도 뽕 흘리며 물을 나르다 보면 쉴 새 없는 대화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기 쉬운 요즘, 집 바로 앞 주말농장 가꾸는 '즐거운 나의 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한이진 님

우리 아파트에 텃밭이 있어 부듯합니다. 내가 직접 옥수수랑 방울토마토를 심고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텃밭이 있고 아이들과 함께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직접 보며 자연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지속되어 도심 속에서 자연과 벗하며 성장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월군

별마로 작은 도서관

우리 동네 책 놀이터!

📍 지역명	영월군 영월읍
📅 세부활동	작은도서관 운영, 지역봉사, 학생 독서논술교실, 스마트교육실시
📅 지원기간	2020년
👥 참여인원	40명

01 공동체 형성과정

우리 아이들이 놀면서 이용하는 놀이터 같은 도서관 어디 없나요?



영월읍에는 공공 도서관이 두 개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도서관과 군에서 운영하는 월담 도서관이 있다. 그런데 학생 도서관은 읍의 입구에, 월담 도서관은 다리를 건너고 철길을 건너서야 갈 수 있어서 두 도서관 모두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였다. 특히 영흥리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여 있어서 많은 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근처에 없어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영월은 원주나 춘천 등 도시와 비교하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도서관이 생기길 원했다. 그로 인해 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 마을에 어떠한 도서관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먼저 학교와 마을 안에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도서관이 필요했다. 두 번째, 딱딱한 느낌의 공공 도서관이 아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춘 놀이터처럼 느껴지는 도서관. 세 번째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험형 도서관. 네 번째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의 운영 주체가 되는 주민 주도형 도서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도서관을 통해서 마을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도서관. 이러한 5가지 조건을 갖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모아,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게 되었다.



영흥리 지도와 별마로 작은 도서관



2018년 초창기 도서관 모습

02 공동체 활동의 시작

영흥리의 작은 기적!

별마로 작은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도서관의 시작은 책 천 권, 낮은 책상 2개, 의자 8개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열악하게 시작했지만, 마을에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였다. 도서관을 시작하면서 책장을 구입하고 책을 채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중 서울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서 3천 권의 장서를 기증받았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모금도 진행하였다.

때마침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도서관 비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되었고, 영월군이 운영하는 월담 도서관을 통해서 도서관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비법과 책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영흥리에 작은 기적이 일어나 준비한 지 6개월 만에 3천 권의 장서, 서가, 열람용 책상, 의자가 준비되어서 2018년 7월, 군청, 교육지원청,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개관식을 하게 되었다.

개관한 다음 도서 대여와 열람을 시작하여, 방학에는 독서캠프, 문화 캠프를 열어 지역 학생들이 와서 안전하고 신나게 놀 수 있는 책 놀이터를 만들었고 지역주민들의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2018년 개관식 사진



2019년 우리동네 책 파티



영월의 자연을 찾아서



초등 독서교실

공간이 생기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책과 열람실이 준비되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자원봉사로 함께 할 지역주민들도 모였다. 처음 도서관을 시작한 구성원을 중심으로 임원과 운영위원회를 만들었고,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도서관의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우리 마을 도서관으로 차츰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다.

도서관이 생기고 아이들이 모여들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나둘씩 진행하게 되었다. 먼저 해마다 가을이 되면 열리는 우리 마을 책바자회를 열어 그동안 기증받았던 좋은 책들을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책 판매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재능으로 학생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체험활동도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하였다.

2019년 책 바자회에는 자원봉사자 30명, 학생 40명, 학부모 30여 명이 참석하여 도서관을 중심으로 마을 축제로 발전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영월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영월 역사유적지 답사, 영월 동강 답사 등을 통해서 많은 학생이 영월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03 공동체 활동의 성과

혼자 빛나는 별에서, 함께 빛나는 은하수가 되는 별마로 작은 도서관



처음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였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도서관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자신의 아이들 손자 손녀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자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아이들과 가족을 데리고 도서관에 오기 시작하였다.

1. 작은 도서관 하나로 마을 정주 환경이 개선됩니다.

별마로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마을에 가져온 첫 번째 변화는 안전한 도서관이 생겼다는 기쁨이다. 그동안 위험한 길거리와 공원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냈던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책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어 영흥리의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지게 되었으며, 작은 도서관 하나로 마을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었다.

2.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동안 큰 도시의 학생들에게만 제공되었던 교육 프로그램을 작은 도서관에서도 다양하게 운영하며 도시와 농촌의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별마로 작은 도서관에서는 초등·중등 독서 지도와 논술 교실을 무료로 운영하여서 많은 학생에게 인문학 교육을 시행하였다.

영월은 코딩 학원이나 교육기관이 없어 소프트웨어 교육이 도시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9년 삼성전자 사회 공헌사업인 삼성 스마트 스쿨에 지원하여 교육기자재를 기증받았고, 그것을 활용하여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코딩 교실을 운영하여서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코딩 교육을 학습할 수 있었다.

또한, 영월 진로체험센터의 진로 체험처로 선정이 되어서 중학교 학생에게 소프트웨어 체험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마을 축제(유지권 공연)



마을 주민을 위한 컴퓨터 활용교실

3. 별마로 작은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역의 모든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별마로 작은 도서관을 처음에는 혼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의 다른 공동체와 연결이 되기 시작하였고 영월 청소년수련관과 연결이 되어서 어린이날 행사 부스를 운영하게 되고, 교육지원청의 요청으로 별마로 코딩 교실을 관내 학교에서 벌이게 되었다.

진로체험센터와 함께 지역 학교를 찾아가 진로 박람회에서 4차 산업 체험활동도 진행하였다. 또한, 강원도 교육청과 함께 마을 교육공동체 온마을 학교에 선정이 되어서 지역의 문화·자연·역사를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별마로 작은 도서관은 혼자 빛나는 별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의 많은 공동체와 함께 빛나는 온하수를 만들어 가는 별이 되었다.



찾아가는 코딩교실(관내 초등학교)



진로체험 박람회(4차 산업 체험)

4. 학생들이 자신들의 고향 영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영월은 폐광 지역이라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 어려웠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타 도시의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여건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고향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 작은 도서관에는 우리 마을 영월의 문화·자연·역사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9년에는 '우리들이 만드는 우리 마을 역사 책' 활동을 통해서 지역을 역사를 배웠고, 2020년에는 '영월의 자연을 찾아서'라는 활동을 계획하여 고생대 지질을 탐사하고 동강의 환경을 보호하며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2021년에는 인문학으로 읽은 우리 영월이라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 마을을 체험하는 과정이 지역에 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자부심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5.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작은 도서관의 운영은 지역주민들이 한다. 그래서 학생들 교육이나 강의도 지역주민들 가운데 재능이 있는 분들을 찾아서 하고자 한다. 이는 마을의 아이들을 마을 사람들이 가르치는 마을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작은 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지역 거버넌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 그동안 지역의 문제를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길 바랐다면, 이제는 지역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작은 도서관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겠다는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생각이 생기게 되었다. 아직은 작은 도서관의 역량이 부족하여서 실질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된다.

04 공동체 활동을 마치며

프로그램 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별마로 작은 도서관



2018년부터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여 올해로 3년이 지났다.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것 같다.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많은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작은 도서관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동안 잘했다고 자랑했던 것들이 멈추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쉬어가는 시간을 통해서 3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1.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 함께할 수 있는 동력자를 찾자.

3년 동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비법은 생겼지만, 봉사자들이 부족하여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부 아니었고, 좋은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운영하기 위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더 많은 봉사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별마로 작은 도서관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몇몇 구성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가운데 도서관에 관심이 있고, 마을공동체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랑방 같은 도서관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2. 우리가 성장해야 좋은 도서관이 만들어진다.

좋은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책을 구비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홀히 했는지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도서관을 운영하는 구성원들을 위해 지원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좋은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장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자들이 성장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하여 독서지도사 교육을 받아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곳의 훌륭한 작은 도서관을 탐방하여서 좀 더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또한, 함께 팀워크를 다지는 워크숍도 진행하고자 한다.



05 공동체 구성원들의 “활동 소감”



안이순 님

그동안 영월은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공간이 부족한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희소식과 같은 작은 문화공간인 별마로 작은도서관이 만들어 졌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함께 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흘려듣고 소홀이 하던 지역의 문화 유적지나 유서 깊은 역사의 스토리들이 저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에게는 지역 유적지 탐방, 독서논술교실 등을 통하여 지역의 역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토론하기, 책 만들어보기, 스마트 스쿨을 통해 코딩이나 컴퓨터 활용교육 등을 열어 아이들이 모일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모듬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길러가는 모습들이 저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분들의 작은 소망이 하나씩 실천되며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께도 기초 컴퓨터교육 등을 실시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컴퓨터를 조금이나마 다룰 수 있고 실생활에 적용할수 있게 되어 기뻐하시던 주민들의 모습은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었으며 더욱더 이 공동체를 문화사랑방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켜나갈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별빛이 쏟아져 빛을 발할수 있는 우리 별마로 작은 도서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이현 님

5년 전 도시에서 살다가 영월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환경이 바뀌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집 가까이에 어떤 곳이 있는지를 알아보던 중 집 근처에 4개의 학교가 인접해있음에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관내에 좋은 도서관이 있지만 집과는 거리가 멀어서 차로 이동해 이용해야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놀다가도 들러서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책을 멀리하는 아이들이 좀 더 책과 가까워 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별마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고 저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독서활동뿐만 아니라 논술지도,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코딩 교육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활동을 만들었더니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별마로 작은 도서관이 지역 아이들이 큰 꿈을 키워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를 갖추 수 있는 작은 놀이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머니님

2020년 코로나19는 별마로 작은 도서관의 꿈과 모든 시간과 공간을 정지시켜 버려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돌아보니 그래도 소소하게 소중한 시간들을 보냈었고 힘든 시간이었기에 더 감동으로 남는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주변에 학교와 학생들이 많지만 우리의 꿈나무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꿈을 나누고 키워갈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거리를 서성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물이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터에 마침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손을 보태고 아이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오늘의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른 아이 모두 책을 즐겨 읽지 않는 터라 어떻게 하면 도서관을 잘 이용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삼성 스마트 스쿨 공모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선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최신 기자재를 배치하고 수업을 하던 날은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도 코딩이라는 생소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머렵기는 했지만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마음에 신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손안에 쏙 들어가는 조그마한 코딩 로봇을 움직이며 환호하던 아이들, 진로체험을 위해 학교에 방문하여 VR 체험과 증강현실 그림책을 보고 코딩 로봇으로 즐거운 게임을 하며 신기해하던 아이들, 또 어른신들과 함께 별마로 천문대를 방문해 별을 관측했던 일, 인색해지기 쉬운 시대에 타인을 위한 생각과 배려, 자신감을 키워주는 연극 공연, 상인들을 위한 컴퓨터 수업 등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수업들, 기억해보니 짬짬이 열심히 달려온 시간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별마로 작은 도서관은 이름과 같이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이들과 지역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드넓은 창공을 넘어 저 우주를 향해 꿈을 쏘아 올리는 꿈을 꾸어 봅니다. 역사는 꿈꾸는 자가 이룬다고 했던가요! 영월에서 꿈꾸는 우리의 아이들이 역사가 되어 그 한 페이지에 있기를 소망해 보면서 별마로 공동체의 한 명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박O주 님

도서관이 있기 전에는 집 근처에 가까운 도서관이 없어서 보고 싶은 책이 있어도 볼 수 없어서 조금 불편했다. 또 재밌게 활동하거나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별마로 작은 도서관이 생긴 이후로 마음대로 읽고 싶은 책도 읽을 수 있고, 독서 캠프 때도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해서 좋았다. 독서토론 시간에도 직접 원하는 책을 고르고 읽고 토론하는 게 재미있었다. 책 안에 상품권도 숨기고 찾기도 하고 정말 좋았다. 학교 끝나고 잠깐 들려서 책도 읽고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좋다.

김O균 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별마로 도서관에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책을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경험하였습니다.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총 22회 걸쳐서 역사 논술 쓰기과 역사책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역사 공부는 개인과 지역 사회, 국가와 세계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의 과거를 알게 되면, 나에게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믿음으로 나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역 사회는 단종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국가 역사는 세종의 왕위 찬탈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세계사는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100년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았던 지역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2019년 10월부터는 '나의 꿈, 나의 미래'라는 주제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마인드맵과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서 나에게 대한 글을 작성하고, 두세 번 고친 뒤에 최종적인 글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조의 왕위 찬탈이 정당한가'와 관련된 역사 논술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역사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독서모임을 더 확대하여서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나누어 모임을 하였습니다. 초등부는 로라 윙겔스의 초원의 집을 읽었고, 중·고등부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었습니다. 총 수업은 8주에 걸쳐 진행되었고, 2회는 도서관에 모여서 책을 읽었고, 나머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Zoom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서 학생들은 글을 읽는 능력을 향상하였을 뿐 아니라 글을 읽고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나누면서 글 읽기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수양하고, 상상력을 기르는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별마로 도서관이라는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떠담게 해 준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춘천시

별빛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아이들과 마을어르신이 서로 돌보는 마을, 별빛

📍 지역명	춘천시 사북면
📅 세부활동	세대 공감, 반찬 나눔, 우리마을119
📅 지원기간	2019년 ~ 2021년
👥 참여인원	112명

01 공동체 형성과정

**문제 발견은 누구나 하지만
문제 해결은 누구나 하지 않는다.**



2004년에 마을 주민 윤요왕씨는 충격에 빠졌다. 하룻길에 마을 아이가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윤요왕씨는 이를 안타까워만 하지 않고 마을 아이들의 방과 후 실태조사를 하여 학부모들에게 공부방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다. 당시 마을 아이들은 농번기가 되면 거의 혼자서 점심을 차려 먹고 홀로 시간을 보냈다. 다행히 학부모 몇몇이 모여서 품앗이 공부방을 만들었고, 2009년부터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2008년에는 농어촌 학교 통폐합 정책이 진행되었다. 당시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는 예비 입학생이 1명밖에 없었다. 몇 년 안에 폐교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이에 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안이 필요했다. 해결방안으로 산골유학센터를 만들어서 도시 유학생을 모집하기로 했다.

당시 마을 주민은 60대에서 70대 초반의 농민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 가운데 십여 가구를 설득하여 농가에서 도시 유학생이 기숙하는 방식으로 유학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마을119



이제야학교(한글과 그림 생애당 활동)

농가는 소득증대와 적적함을 달랠 수 있고, 유학생들에게겐 고향을 만들어주자는 의미였다. 한때는 25명에 이르던 유학생이 현재는 11명이다. 그러나 현재 유학을 왔다가 부모들도 거주지를 옮겨서 사는 가구가 6~7가구에 이른다. 이전에 정착한 가구까지 하면 마을공동체 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2007년부터 마을 어르신 댁에 소소하게 고장 난 것을 고쳐드리거나 병원에 이동해 드리는 일을 간간히 해 왔고, 이를 우리 마을 119라고 부르고 지금은 전담 인력을 두고 활동 중이다.

공부방을 시작하던 때는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60~70대 초반이었다. 그분들이 세월이 흘러서 70대 후반에서 80대 중반이 되었다. 마을의 40%에 가까운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의 필요성을 느꼈고, 2018년에 준비해서 2019년부터 “나이 들기 좋은 마을”이란 팀을 구성해서 마을 어르신 돌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를 발견하고 비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서서 일은 필요한 일이지만 쉽지는 않다. 춘천 별빛 사회적 협동조합이 하는 일은 마을에 살면서 이웃과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 실천해 가는 과정이다.



02 공동체 활동의 시작

제1차 복지기관은 마을이다



2018년에 마을 어르신 132명을 직접 찾아뵈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우선순위를 정하고 2019년부터 마을 어르신들의 돌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마을 어르신들이 제일 불편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병원 진료나 미용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이동의 불편함이었다.

그래서 월 1회 미용실을 운영했고, 병원 진료를 위해 차량 이동을 지원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조사에선 말하지 않았지만, 실생활에서 자주 이야기해줬던 집안 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졌던 우리마을119 사업을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2020년부터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간단한 집수리부터 확장하여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안전 손잡이와 가스차단기 설치, 누전차단기와 LED 등으로 전등 교체, 노인회관 입식 공간 만들기 등을 하면서 마을 어르신들과 더욱 친밀해졌고 마을 어르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다.



점심 나눔 행사

또한, 홀몸 어르신 댁에 서른 대의 스마트토이(말하는 인형)를 가져다드려서 저녁 시간대 이후에 혼자 계시는 외로움 해소에 신경을 썼고, 마을 아이들과 마을 어르신이 만날 수 있도록 계절별 점심 나눔 행사도 진행했다. 마을 아이들과 마을 어르신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 밖에도 '우리 집에 놀러와' 같은 마을 어르신 댁에 마을 아이들이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마을 어르신이 반찬을 만들어, 마을주민과 아이들이 홀몸 어르신 댁에 가져다드리는 반찬 나눔 정 활동을 2019년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시작하여 이후 다른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세대 공감 활동



홀몸 어르신 댁뿐만 아니라 월 1회 노인회관에 반찬을 들고 가서 함께 식사가 어려워 집에 따라 120여 명의 어르신 댁에 반찬 나눔으로 대체하였다. 2019년에 홀몸 어르신 댁 반찬 나눔을 43가구로 시작하여 현재는 58가구로 증가했다. 마을 어르신들의 고령화비율이 몇 년 사이에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03 공동체 활동의 성과

따로 또 같이 생활하는 세대공감 활동



우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3년 동안 지속했다는 것이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직접 여쭙고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2018년에 마을 시민이 중심이 되어 농촌형 지역사회통합 돌봄을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사업이 이제 제법 틀을 잡아가고 있다. 우리마을119 사업의 처음 시작은 전구나 싱크대 막힘 같은 소소한 수리로 진행하다가 점점 어르신들의 낙상

방지와 건강에 관련된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선 이동의 어려움과 시설의 미비로 수리 고장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일상을 돌보는 활동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전담 인력이 없어서 그 일을 처리하게 되다 보니 빠른 처리가 가능해졌고, 연락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어르신 댁을 찾아다니며 예방 차원에서 선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홀몸 어르신 댁 반찬 나눔 활동도 3년째 진행하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어르신의 안부와 댁 시설 문제를 살펴보고, 아이들과 지속해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드리는 과정으로 성장했다. 다만 홀몸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문제(혼자 식사하기 힘들다)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식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고민 중이다. 비용의 절감과 자립적인 재정 마련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지속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년여를 진행하다 보니 복지기관과 겹치지 않으면서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르신 돌봄을 어떻게 할까, 에 대한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마을 아이 돌봄을 기반으로 시작한 공동체이기에 마을 어르신과 마을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을 꿈꾸게 되었다. 국내외 여러 사례를 접할 때 어르신의 심리 정서 건강에 이로움을 주는 것이 동물과 식물 키우기, 아이들과 만남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해서 마을 아이들과 마을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는 활동을 해 왔고, 2020년에는 마을 아이 10명이 12주 동안 100명의 마을 어르신 댁을 찾아가서 케리커처를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별빛센터 1층에 세대 공감 전시공간을 활용하여 전시하기도 하였다. 마을 아이들이 학교와 방과 후를 마치고 돌아오며 오후 4시가 되고, 마을 어르신들은 그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또 같이 사용하는 세대 공감센터를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케리커처 그리기 '동네사람 100'



반찬 나눔 정

04 공동체 활동을 마치며 서로 돌보는 마을 별빛엔!



우리들의 목표는 마을 어르신들이 정든 마을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마을에서 돌아가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을119 사업을 통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서서 일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 공감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세대 공감센터를 만들어서 마을 어르신들이 순간마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목표

정든 마을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



따라서 정기적인 방문 진료소와 찾아가는 미용실, 공동식당과 마을 산책로 만들기를 계획하며 나아갈 것이다. 가장 큰 과제인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자원 확보도 과제로 삼아서 말이다.

예전에는 더욱 그랬지만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농촌에서 1차 복지기관은 마을이라는 것이다.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마을 어르신들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곳이 없다. 어르신들로 인해 함께 사는 마을이 있고,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있다. 그러기에 다시 마을에서 할 일에 대해 생각해봐도 마을 어르신과 마을 아이들이 만날 수 있게 하는 일과 마을 어르신이 마을에 머물도록 하는 일이 큰 의미가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어르신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마을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내가 사는 마을을 위해서도 말이다. 결국, 서로가 돌보며 살고 있다는 생각을 놓칠 수 없기에 오늘도 고개 숙여 마을 어르신에게 인사드린다.



우리마을119 매뉴얼북 발간



마을소식지 발행



05 공동체 구성원들의 “활동 소감”



최0영 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두 번이나 변경하고 결국 예산집행을 다하지 못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홀몸어르신이 집에서 혼자 식사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자 했는데 반찬 나눔 활동으로 진행된 것이 아쉽다.

그렇지만 마을어르신들과 마을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속해서 가졌고, 2021년에는 주1회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는 활동으로 성장했다.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고령화된 우리 마을에서 세대공감활동을 3년 동안 진행하고 지속하며 마을어르신과 마을아이들이 서로 돌보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0미 님

아이들이 마을어르신을 만나러 가는 날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어느 때는 언제 가냐고 묻기까지 한다. 처음에는 마을어르신도 아이들이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반기며 맞이한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이는 행사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반찬을 들고 찾아뵙거나 음악회를 통해서 적은 수의 마을어르신들을 초대하는 활동을 꾸준히 했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김0정 님

내가 맡은 역할은 절기행사 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무산이 되고 주말이 아닌 평일에 반찬 나눔을 하다 보니 거의 참여를 하지 못했다. 그 점이 아쉽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되었으면 한다.

 박O숙 님

처음엔 마을어르신을 만나는 일이 부담스러웠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 익숙해졌다. 반찬을 가져다 드리고 난 뒤 찾아보며 들었던 어르신들의 삶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고 많이 배웠다. 마을사람으로서 마을어르신을 돌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더 많이 돌봄을 받은 것 같다.

 박O명 님

어르신과 아이들이 만나는 지점을 지속하고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낯설고 서로 어렵고 불편해 보였던 활동이 점점 어르신들과 어르신을 만나는 아이들도 자연스러워져 가는 것을 보고 이러한 활동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다.

코로나로 아직도 과거에 비해 활동하기 부자연스럽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예전과 같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철원군

함께 모이면 즐거운 도성

공동육아를 통해 아이와 어른이 함께 변화하고
행복한 성장을 꿈꾸는 마을 공동체

📍 지역명	철원군 갈말읍
📅 세부활동	아파트쓰레기 리사이클링, 철원 낙농체험, 명랑운동회, 체험농원방문
📅 지원기간	2020년 ~ 2021년
👥 참여인원	21명

01 공동체 형성과정

놀이터가 없는 우리 아파트, 친구를 만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동체



도성아파트는 세대수가 적고 맞벌이 부부가 많으며 단지 내 놀이터가 없어서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가 부족했다. 이를 고민하는 부모들은 문화 시설이 잘 갖춰진 장소를 가지 않아도 철원지역 내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공동육아를 통해 아이들은 놀이와 체험을, 부모는 육아 정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아이들과 마을 축제 방문

02 공동체 활동의 시작

우리 함께 모이자!!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계획을 월별로 수립하고 주제에 맞게 운영하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월에는 아파트 쓰레기 줄이기라는 계획을 세워 아이들이 스스로 분리수거를 실천하고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여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려고 하였다. 또한, 재활용 병을 활용한 냅킨 공에 연필꽃이와 컵라면 용기를 활용한 클레이 화분 만들기와 같이 다양한 활용 방법을 통해 재활용에 대한 다양한 방법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환경미화 활동

4월에는 꽃향기 가득한 아파트 만들기라는 주제로 환경미화가 필요한 아파트 내 화단을 가꾸고 꽃을 심었으며, 본인들이 심은 꽃을 돌봄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환경미화 활동을 통하여 공동체의 의미를 느끼고자 하였다.

5월은 철원에 있는 목장을 방문하여 젖소 먹이 주기, 치즈 만들기, 만든 치즈로 피자 만들기 등 낙농 체험을 하였다. 우유를 가공하여 치즈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동물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6월에는 천연생활용품 만들기과 기탁식을 계획하여 천연 모기 퇴치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철원군청과 연계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맡기는 행사를 하였다. 공동체 의미를 확장하고 나눔을 통해 봉사의 의미와 나눔의 의미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함께 모이면 즐거운 도성 명랑운동회를 기획하여 지역 내 체육시설에서 작은 운동회를 개최하여 공동체만의 체육 활동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가족끼리는 우애를 다지고 공동체와는 화합하고 협동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7월에는 철원 특산물을 이용한 쿠킹클래스라 하여 고구마, 감자, 파프리카 등 철원의 농산물에 대해 알아보고 학습한 뒤, 철원농산물을 이용해 감자 빵, 고구마 빵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 9월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외출을 자제하고 "코로나 극복 집콕 놀이"라는 주제로 가정 내 활동으로 변경하였다. 아이들이 원하는 창의적 만들기 키트와 보드게임을 등을 하며 가정 내에서 가족들과 즐겁게 지냈다.

9월은 추석맞이 아이싱 쿠키 만들기를 계획하여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체험하도록 아이싱 쿠키 만들기 키트를 제공하였다. 아이싱을 자유롭게 꾸밈으로 창의력을 높이고 가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10월에는 자연과 함께 송마 & 농원 & 동물체험을 계획하고 늘 푸른 체험농원을 방문하여 송마체험, 동물 먹이 주기, 강릉 열차 타기, 사과 파이 만들기, 멜론 따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였다. 자연 친화적 놀이를 통해 감성을 발달시키고, 동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12월에는 비대면으로 한해 마을공동체 활동 마무리하는 시간을 계획하여 랜선 음식 만들기 & 영어 수업 & 연말 파티를 진행하였다. '나는야 도성아파트 산타'라는 행사를 기획하여 주민에게 줄 다과를 구매하고 포장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배달호수를 맡아 배달하는 활동을 통해 책임감 향상 및 나눔에 대한 즐거움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아파트 주민에게 선물 주는 행사를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홍보할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낙농농가 체험학습



영랑 운동회



공동체 활동 모습



비대면 활동 모습



03 공동체 활동의 성과

함께 해서 즐거운 도성 가족!!



공동체 활동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가하여 가족의 유대감이 증대하였고, 매월 계획된 활동을 실천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 성취감을 학습할 수도 있었다. 또한, 육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육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었다.

그리고 내 고장 철원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지역에 관한 관심과 애착심이 생기게 된 계기를 맞게 되었다. 나아가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직접 제작한 생활용품을 맡기어 봉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04 공동체 활동을 마치며

너 + 나 = 우리



우리 공동체가 2021년 마을공동체 성장단계에 선정되어서, 아이의 돌봄이 지역사회 또는 전문가의 영역을 벗어나 부모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계획하여 더 발전된 공동체로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엄마, 아빠 교실 학습 및 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 다양하고 질 높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또한, 아이들의 체력을 향상하기 위해 주 4회 건강 교실 추진을 계획하여 신체활동도 병행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내 고장 알고 탐방하기 (유네스코에 지정된 한탄강 지질을 자세히 알기)를 계획하여 본인의 고장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05 공동체 구성원들의 “활동 소감”



이이민 님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얼굴 모르던 사람끼리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혼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과 함께 우리아파트 가꾸기, 엄마아빠가 계획한 가족체육대회, 이웃과 나눌 크리스마스 간식 꾸러미 만들기 등...작년한해 코로나로 대면 교류가 어려웠지만 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변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빨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공동체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이정 님

처음 만났을 때 금세 친해지면서 다음 만남을 기다리는 아이를 보면서 하겠다고 하길 잘 했구나 싶었습니다. 5월 딸기체험에서 형아 누나 만난다면서 엄청 좋아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아는 형과 누나 이모들이 있다는 게 아이는 엄청 좋은가 봅니다.

사실 저도 그렇구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시고 행사에 빠지는 가족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한다고들 하는데 우리공동체는 더 돈독해져서 앞으로의 시간들이 기대됩니다.

김이은 님

아이들은 부, 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지만 부, 모는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몰라서 시간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방법을 알게 되었고, 미처 몰랐던 아이의 특징,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잘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활동 참여만 하면 되겠지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법, 나를 발전 시키는 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참여가 아니라 우리가족을 한 단계 발전하게 되었던 공동체 활동이었습니다.

김지 남

처음엔 얼굴만 알던 사이가 모여서 어색한 적도 있었지만 1년 동안 서로 응원해주며 아이를 키운다는 공통점 아래 많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활용을 멋진 작품으로 탄생시키기, 아파트 꽃 심기를 통해 주변 아름답게 만들기 및 천연 모기 퇴치제를 만들어 주변에 나누어 주는 선형 활동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한 뼘 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작년에는 저희팀인 "함께 모이면 즐거운 도성"이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더욱 뿌듯한 한해였고요. 올 한해는 규모도 더 커지고, 우리 모임에 속해있는 구성원 뿐 아니라 우리 아파트 전체, 나아가서는 발전하는 우리 마을을 위한 출선수범하는 모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한해를 돌아보면서 '이번 한해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여러 모로 성장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조선 남

우리 아파트는 단지 내 놀이터가 없어서 아이들이 놀려면 이 동네 저 동네 놀이터를 다녀야 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던 참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접하게 되었고 공동육아를 주제로 공동체사업을 한다면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사업신청을 했고 선정이 되어 2020년 동안 발아단계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동육아를 통해 마을공동체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 매달 만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전문가가 아닌 부모들이 해야 했기에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이면 즐거운 도성"이라는 사업명처럼 매달 모이면 모일수록 아이들 뿐 아니라 부모들까지 눈인사만 했던 사이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 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 계획했던 활동들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zoom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도 모두가 잘 참여주어서 즐겁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가 되어가는 것을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 남

벌써 2년차를 맞이한 저희 아파트 공동체는 나날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공동체로 변모해가고 있어 앞으로가 기대되는 공동체입니다. 늘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즐거운 기획을 하고 행복한 이벤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책임감을 갖고 이루어나가는 과정이 재미있고 기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저희가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공동체의 기쁨에 대해 알게되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

낭만서행

같이 있어 가치 있고, 소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나누고 그리고 꿈꾸는 '따뜻한 문화공동체'

📍 지역명	횡성군 횡성읍
📖 세부활동	독서, 작은 도서관, 새마을문고, 문화공동체, 마을아카이브, 그림책만들기
📅 지원기간	2019년 ~ 2020년
👥 참여인원	30명

01 공동체 형성과정

소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시작



우리의 활동은 책을 좋아하는 엄마들이 모여 책과 관련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다 토론으로 이어져 정기적인 독서 모임을 만들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나아가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계기로 이어져, 작은 도서관에서 책으로 마을 사람들과 '상생-공존-가치'를 꿈꾸고, 마을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우리의 비전은 '같이 있어 가치 있고, 소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나누고, 그리고, 꿈꾸는 따뜻한 문화공동체'이다. 횡성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 '책 북'을 거점으로 책으로 만나고, 책으로 소통하고, 책으로 이야기 나누는 일상적인 모임이 만들어졌다. 책으로 인해 나누는 삶 속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꿈꾸는 이상가'에서 '실천가'로 소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활동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작은도서관 책북



낭만서형 정기모임

우리의 작은 목표는 '우리 마을을 좀 더 알고, 우리 마을 사람을 알고, 우리 마을에서 꿈을 꾸며, 우리 마을을 좀 더 사랑하자'였다. 이 작은 목표를 바탕으로 우리 마을 역사를 바르게 알기 위한 마을에 대한 애착심 형성, 우리 마을 인문학교육 및 아카이브 활동, '한마을 한 책 읽기'라는 지속적인 독서캠페인을 통해 따뜻한 문화공동체 형성, 학교 지역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주민이 참여·기획하는 함께 만드는 독서문화 운동의 전개, 지식과 문화의 나눔인 문학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02 공동체 활동의 시작

같이 있어 가치 있는



남만 서행은 11명의 구성원으로 시작되어 실무를 담당하는 회원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고, 추가로 4명이 합류하여 공동체모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대표자는 모임의 대외적인 활동을 비롯해 사업계획을 총괄하고 실무자는 예산 및 정산을 대표자와 함께 협의하는 등 역할을 적절히 분배했다. 회원들의 실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배려한 이유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남만 서행은 횡성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 '책 봄'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책 봄은 '책과 마주 봄, 그래서 더 좋은 날'이라는 뜻이며 책을 매개로 한 독서문화형성이라는 목표를 가진 공동체 활동의 거점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발히 하는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9 횡성평생학습축제



마을이해교육 (마을에서 삶과 사랑을 그리다)



2020 책봄개관식



마을이해교육 (삶을 위한 독후수다)



마을그림책만들기



책봄방학돌봄꾸러미

낭만 서행의 사업은 2019년에는 '낭만 서행 시즌 1_책 워를 걷다', 2020년에는 '낭만 서행 시즌 2_마을을 걷다'라는 사업으로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에는 '책'에 중점을 두어 독서 관련 사업을 주로 진행했다. 특히 작은 도서관 책 봄의 개관 준비에 이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한마을 한 책 읽기 독서캠페인'이 중점 사업이었다. 그리고 주제 도서를 활용한 지속적인 독서 모임, 인문학 강좌, 지역아동 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연계한 찾아가는 독서 골든벨, 횡성 평생 학습 축제와 함께하는 독서 축제, 엄마들의 꿈이야기를 담은 '내게도 꿈이 있었지' 책 발간,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과 마을 주제로 마을지도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2020년에는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 '책 봄'의 본격적인 개관과 도서 기증 및 지역 새마을금고의 후원이 이루어졌고, 2019년에 이은 '한마을 한 책 읽기 독서캠페인'을 중심으로 독서 모임이 지속해서 이어졌다.

또한 어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마을 이해교육인 인문학 강좌 '삶을 위한 독후수다'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북아트 기법을 활용한 마을을 주제로 한 그림책 만들기, 코로나 시대에 맞는 '책 봄 방학 돌봄 꾸러미'를 운영하며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지는 한 해를 보내기도 했다.



03 공동체 활동의 성과

'사람-마을-교육-같이-가치'를 꿈꾸며!



우리의 활동정리!

첫째,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였다. 단순히 도서 대출이 주가 아닌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공유문화공간이라는 플랫폼을 형성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독서문화 캠페인 중 '한마을 한 책 읽기' 운동의 지속적인 홍보와 독서문화지도사 양성과정 등의 독서관련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마을을 주제로 한 자연, 사람, 공간 등의 기록(사진, 그림책 등으로 공유)을 남기는 마을 아카이브를 진행하였다. 넷째, 책봉 돌봄꾸러미 프로그램은 방학 중 돌봄프로그램 운영으로 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없애고자 하였다. 다섯째, 문화 운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도서관이 단순히 도서를 대여하는 공간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키며, 코로나로 인한 지역주민의 공유공간 이용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마을 사진과 마을 그림책 만들기 사업으로 인한 마을주민의 애향심과 지역 관심도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독서모임



책봉돌봄꾸러미

우리의 성과!

첫 번째, 책으로 시작된 공동체인만큼 한마을 한 책 읽기 독서캠페인을 통해 독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두 번째, 작은 책 출판은 경력 단절 여성 엄마들이 참여한 '엄마도 꿈이 있었지' 에세이를 발간하면서 지역의 경력 단절

여성들의 꿈에 대한 갈망과 사회참여로 이끌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게 하였다. 세 번째, 마을 그림책 만들기는 마을을 주제로 한 북아트를 활용하여 아이용 그림책 만들기로 마을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남기고, 결과물(사례집 발간 예정)로 이어졌다. 네 번째, 공동체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졌던 모임에서 새로운 구성원을 유입하는데 성공했고 2021년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하였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참여하게 되어, 계층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이을 수 있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공유플랫폼 형성으로 지역사회 단체와 연대하며 정보교류, 문화 플랫폼과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독서모임



책봄돌봄꾸러미



04 공동체 활동을 마치며

나, 너, 우리 모두의 휴식처가 되는 낭만서행!



작지만 다양하고 적극적인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낭만 서행은 공동체라는 의미보다는 가족 같은 의미로 2년을 보낼 수 있었다.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마을 구석구석에 있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만나며 마을을 바로 알고 싶은 마음으로 소통하고자 하였다. 또한 '횡성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 책봄'이라는 장소로 인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했고, 이는 독서 모임, 방학 돌봄 꾸러미 등 코로나 19로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마을그림책만들기

낭만 서행은 '나, 너, 우리 모두의 휴식처'라는 비전으로 교육플랫폼, 문화 플랫폼, 언론 플랫폼의 3가지 분야로 시즌 3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마을 한 책 읽기 독서캠페인'은 '한마음 한 책 읽기'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행복 교육지구사업과 연계한 마을 교육공동체 현장에서 마을을 주제로 한 보드게임과 그림책

키트 등의 마을 관련 교구를 아이들과 만들어볼 생각이다. 또한, 책 읽기 독서캠페인을 통한 지속적인 독서 모임과 독서공유회를 개최해 지역의 독서문화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에 보탬이 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단체와 연대하며 횡성의 마을공동체가 지금보다 더 발전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자 한다.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지도그리기

소소한 모임으로 시작해 사소하지만 많은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늘 함께하는 낭만 서행으로 '나, 너, 우리 모두의 휴식처'가 되길 기대해본다.





원주시

마을안전 서포터즈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직접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마을안전 서포터즈입니다.

📍 지역명	원주시 단계동
📅 세부활동	안전교육실시, 불법몰래카메라 안전점검, 코로나19 방역활동
📅 지원기간	2016년 ~ 2020년
👥 참여인원	55명

01 공동체 형성과정

범죄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단계동은 원주시 택지 개발지역으로 각종 유해업소가 많이 밀집한 안전 불감 사고 지역이다. 매일 사고가 발생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대와 자율방범대는 각각 1개씩이며 이 인력으로 마을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점점 범죄 수법은 악랄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 이에 주민 스스로가 직접 마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안전한 마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찾게 되었고,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운영을 위해서 '마을안전 서포터즈'를 창단하게 되었다.



원주시 여성안심귀가 동행 지원서비스



원주시 여성안심귀가 인력지원





주민참여형 스마트안전보안관 구축 업무협약



영륜1동 경로당 방역팀 방역소독지원



원주경찰서 청소년계와 합동 운영순찰_1



원주경찰서 청소년계와 합동 운영순찰_2



안전 및 방역 교육서비스 지원



안전 및 방역 교육서비스 연수



안전장비, 방역용품 자물방범대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장 방역 지원

02 공동체 활동의 시작

마을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모인 사람들 모두 안전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기본기가 부족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본 안전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에 대한 교육 활동을 먼저 진행하게 되었다. 위급상황에 몰바르지 못한 응급처치는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안전교육은 구성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상황과 같은 조건으로 실습도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교육 활동이 될 수 있었다.

단계동 단계택지는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학교뿐만 아니라 유흥업소도 함께 밀집된 지역이다. 유흥업소가 일반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젊은이들, 특히 어린 학생들의 생활 환경개선과 안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지역 업체(식당, 학원 등)에 불법 몰래카메라 안전 점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불법으로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찾을 수 있는 장비를 대여하여 점검을 요청한 지역 내 업체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점검을 통과한 업체는 안심 인증 패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시민들의 안전도 지키고 침체한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소독 지원



소상공인 무상 '소독증명서' 발급 지원서비스

야간에는 지구대와 자율방범대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여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안심귀가 보안관'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여성 안심귀가 보안관'은 마을안전서포터즈 구성원들이 팀을 꾸려 교대로 단계동 일대를 돌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로 인해 여성들이 밤길을 안전하게 다니게 되었고, 지역주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 범죄 및 지역 범죄 발생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코로나19 방역소독 지원



방역팀과 보안관팀 합동 운영

마을안전서포터즈는 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 앱을 이용하여 지역 환경안전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화재, 지진, 수해, 보도블록 탈락, 신호등 문제, 맨홀 훼손, 불법주정차 신고, 장애인 주차장 불법 주차 신고, 위험지역 신고 등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활동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마을 곳곳에서 방역활동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방역 서비스를 신청한 지역 내 업체에는 방역 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마을안전서포터즈는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03 공동체 활동의 성과

안전마을은 우리의 꿈



지역단체나 지역업체(식당 등) 불법 몰래카메라 안전 점검 사업은 마을 안전 패치를 발급하는 운동이다. 현재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약 30곳을 선정해서 점검을 시행하였고, 차후에는 50곳으로 확대하여 관리 대상을 모범안전업체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마을 가꾸기로 누구나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불경기였던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또한, 지역 업체에 불법 몰래카메라 탐색 지원 후, 스티커 발급으로 안전한 업체의 이미지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업체 사장들은 말하고 있다. 야간에는 '원주시 여성 안심귀가 보안관' 동행 서비스 활동 지원으로 여성들이 밤길을 안전하게 다니게 되고, 늦은 시간 귀가를 고민하는 여성의 근심과 걱정을 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 및 지역 범죄 발생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보안관 활동 '원주경찰서장 감사장'



보안관 활동 '경찰청장 감사장'



보안관 활동 원주경찰서장 감사장



단계지구대 종점 방역대상(방역 실시 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안전 방역 활동으로 방역 소독 활동을 약 200회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 내 안전지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마을안전서포터즈의 여러 활동을 지켜본 지역주민과 단체장들이 고마움을 표시해주셨다.

특히 단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전마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장의 적극적 협조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을안전서포터즈 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안전불감증 인식개선과 단계동이 안전한 마을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사람들에게 가져다주었다.

그 결과, 이러한 노력을 많은 분이 알아주셔서 경찰청장상 2개, 원주경찰서 감사장 2개, 강원도 마을공동체 발표대회 2019년 최우수상에 걸쳐, 2020년에는 우수상 수상까지 받을 수 있었다.



04 공동체 활동을 마치며 우리마을의 안전은 우리가



매년 사업을 운영하면서 우리의 목표와 비전은 같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마을안전서포터즈는 안전과 관련된 전문성이 없으면 주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공동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실무능력을 양성할 예정이며 장비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계 가능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들과 협업을 추진한다면 마을 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성안심귀가보안관 캠페인운영(교육 및 인력 지원)



여성안심귀가보안관 교육 및 인력 지원

마을안전서포터즈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내부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 향상과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계획이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확보한다면 시에서 진행되는 행사 안전에 대한 영역을 책임지고 전담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려고 구상하고 있어 사회적협동조합 강원도 마을 안전지원센터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활동 범위를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로 넓히고, 활동가들은 퇴직하신 분들 및 55세에서 65세 사이의 연령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또한 어떻게 구상 중이다.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안전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비영리 분야와 영리 분야 모든 부분을 염두하고 있으며, 관련 조사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기존사업 진행에 더해 방역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로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들이 방역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 진행 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방역전문가들의 양성과정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 강원도 마을 안전지원센터'이다.



불법몰래카메라 안전점검



05 공동체 구성원들의 “활동 소감”



변이순 님

마을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 소통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마을 구석구석을 순찰합니다. 과연 우리의 발걸음이 도움이 될까?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휴대폰 등으로 편리하고 교묘하게 범죄에 쓰여 지고 있는데 우리가 범죄예방에 도움은 될까? 라는 생각을 되뇌며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범죄가 벌어지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보안관들은 지역 주민들과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취약지역과 우범지역을 순찰을 하고 학교주변의 학교폭력 예방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위해 경광봉을 들고 주변의 골목길을 살핍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둡고 위험한 곳 등은 안전신문고에 올립니다. 마을은 밝아지고 안전한 거리로 변해갑니다. 또한 탐지기를 이용하여 화장실 등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합니다. 불법카메라 근절과 피해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 스티커와 안전패치를 부착합니다. 우리가 순찰하는 코스 우리 마을은 안전 존이 됩니다. 보안관들이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우리 마을의 안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이정 님

마을안전서포터즈는 2017년부터 주민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안전마을의 좋은 예이다. 우리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 만들기에 스스로가 동참하며 이웃간의 협력을 통해 안전마을 만들기에 힘써왔다. 불법몰래카메라 점검활동을 할 때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몰래카메라 점검을 통한 안심을 얻으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안전환경개선의 모습이 보여 뿌듯하였다. 활동반경내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는 시설에 대한 점검 매뉴얼을 떠올리며 스스로의 안전의식 또한 높아졌음을 느꼈다.

마을안전서포터즈의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원주 전역으로 확대보급하여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더 안전을 보장받고 편히 지낼 수 있는 마을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소0 님

평소 봉사활동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혹 사 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무엇이라도 보탬은 되고 싶다는 생각에 봉사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인 마을안전 서포터즈의 사업활동을 하면서 안전에 꼭 필요하다고 평소 생각했던 심폐소생술, 소방안전, 불법 촬영 카메라 등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니 마을 안에서의 안전에 대해 소외된 계층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웠고 중간자의 역할로서 연계 및 다양한 홍보와 활동으로 마을지킴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좋은 이웃분들과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공동체 사업 내의 안전 활동 중 불법 몰래카메라 점검활동 및 여성안심귀가 보안관 서비스 활동을 통해서 여성들의 안전한 화장실 사용 및 안심귀가를 돕기도 했습니다. 꾸준히 마을안전에 대한 활동을 하였고, 코로나가 발현된 직후부터는 지역 내 방역 활동을 통해 내가 사는 곳이 제일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구중 안전의 욕구가 해결된다는 것은 곧 행복입니다. 내가 사는 마을이 안전하고 주민들과의 봉사활동으로 스스로 마을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는 주민 스스로의 자생력이 더욱더 생기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0숙 님

코로나19 방역 TF팀으로 활동하며 마을공동체의 활동전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적인 재난의 시점에서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동네 전체를 생각하고 사랑간의 모임이 불가피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 개인방역에 힘쓰며 확진자의 동선에 있는 장소는 반드시 방역을 통해 재확산되는일이 없도록 철저히 방역소독하였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세가 보도 되면 온 동네는 조용해진다.

누구하나 나서서 봉사활동이나 안전에 신경쓰기 보다는 개인이기주의의 마음이 뿔어져 사회는 더욱더 약해지고 취약해진다. 하지만 마을안전서포터즈 코로나19 방역 TF팀은 과감히 나섰다. 지금 코로나19 방역을 시작으로 더 이상의 확진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육 받은대로 공간방역 뒤는방역으로 속시나 모를 세균감염에 총력을 기울였다. 나부터 시작하는 개인방역에서 우리동네를 지켜나가는 방역을 통해 마음속의 백신을 얻은 기분이었다. 알아주는 이 없어도, 성과가 없어도, 마을안전서포터즈는 안전한 내 동네를 위해 꾸준히 활동할 계획이다.

 김소숙 님

마을공동체 활동이 어색했던 저에게 '마을안전서포터즈' 활동은 많은 부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부터 잘하자, 내가 바뀌어야 사회가 바뀐다. 라는 생각으로 나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마을안전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모여 함께 한다는 것은 나하나의 1+1=2가 아닌 1+1+1= 무한대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과 나의 부족한 점들을 공동체에서 채워서 새로운 우리,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한 자격과 책임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안전하고 편안하며 쾌적하게 근심 걱정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마을을 위해 마을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다인 것으로 알고 있던 저를 마을공동체 사업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해결 방법을 알려 주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방역과 안심귀가, 몰래카메라 점검방법, 안심화장실, 공공시설의 안전한 이용 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을안전서포터즈 공동체 사업은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에 확대 실시되어 모든 마을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춘천시

마중물

지금은 작은 한 줌의 물이지만
훗날 큰 물이 되리라

📍 지역명	춘천시 시농동
📅 세부활동	마을환경정비, 마을축제
📅 지원기간	2020년
👥 참여인원	20명

01 공동체 형성과정

옆 동네는 변화하는데 우리 동네는 왜?



예전 6·25전쟁 당시 옥산포 전투로 유명했던 옥산포 마을에 거주하는 인구층은 노년층이 대부분이다. 5년 전 옥산포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직장이 시내에 있어 옆집에 사는 사람도 동네의 구조도 모르고 바빠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하러 나갔다 버스에서 내려 어둡고 작은 쓰러져 가는 담벼락을 지나 집으로 들어오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동네를 자세히 돌아보게 되었다. 회색빛 벽들로 지저분하게 형성되어 있는 마을을 보고, 문득 '옆 동네 마을은 지저분한 벽에 페인트칠하여 그림을 그려 아늑한 느낌을 주는데 우리 동네는 왜 그럴까?' 무심하게만 지나쳐 왔던 나의 모습과 다른 동네 봉사자로 참여하며 활동했던 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어머니가 지내고 계시며 많은 어르신이 사는 이 동네를 위하는 것은 정비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마을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 통장님과 상의 하여 사농동 주민들에게 내가 선두가 되겠으니 함께 해보자고 권유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공동체 활동 전 마을 담벼락

02 공동체 활동의 시작

담벼락 색을 입히고 그림을 그려보자!



우선 동네 골목길에 오래된 회색빛 담장에 색을 입히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낮고 울퉁불퉁하며 부서진 부분이 많은 담에 예쁘고 주제가 있는 그림을 그리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먼저 회색빛 담벼락에 시간이 지나도 덜 지저분해 보이는 파란색을 칠하고 하얀 구름을 그려 산뜻한 느낌을 주자는 의견이 모여, 공동체원들과 동네 아이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모여 분필로 밑그림을 그려 놓고 벽화를 색으로 메꾸는 작업을 시작으로 마을의 변화를 주었다. 그림 작업을 하는 동안 옷이 지저분해지고 얼굴에 묻기도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행복했다.



벽화 그리기

우리가 처음 활동할 때는 동네 주민들의 관심도 없었고 공동체 분들은 직장을 다니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도와주었던 것은 나의 아이들이었다. 매일 틈틈이 나가서 그림 색칠하는 나의 모습을 본 뒤 따라나서기 시작하여 작업을 끝마칠 때까지 묵묵히 도와주었던 든든한 모습과 페인트에 손과 옷이 지저분해졌는데도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모습은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었더니 벽화에도 화사함이 더해져 들어오는 길목이 환하고 행복한 골목길로 변했다.



마을 화단 조성



03 공동체 활동의 성과

파란 하늘에 구름이 뭉실. 산뜻한 골목길 완성~



회색빛의 어둡고 침울했던 골목길이 파란 하늘이 되었다. 떠다니는 구름, 꽃, 물고기, 다소 미숙하고 서툴러서 깔끔한 모습은 아니지만, 오히려 정겨운 느낌으로 어르신들의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을이 완성되었다.

잡초로 무성했던 집 앞 화단을 정비하여 꽃을 심어 옥산포마을이 영화 속 마을로 변하였고, 구성원들 집 앞에 작은 화단이 생기기도 하였다. 내 집 앞 화단에 물을 줄 때 옆집의 꽃이 시들어 가면 같이 물을 주며 작은 동네에 꽃길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제는 가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 장소가 되었고, 처음에는 무심했던 주민들이 동네가 너무 예뻐졌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하였다.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골목 안쪽에 사시는 주민들까지 찾아와서 본인의 집 앞도 꽃길로 조성하길 원한다며, 무심한 마을에 조금씩 관심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공동체 활동 중 환경정비를 하면서 물랐던 옆집, 앞집 어르신들을 뵈 수 있었고, 친구가 없으셨던 저의 어머니에게도 친구가 생기셨다.



"춘천 봄내 소식지" 마을 소식 게시

그리고 기자분이 찾아와 인터뷰하면서 우리 마을이 춘천시 봄내 소식지에 실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식들로 인해 주변 분들이 많은 축하 인사를 주셨고 응원 메시지도 주셔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공동체 월동 후원성원 마을 벽화



04 공동체 활동을 마치며 시작은 미비했지만 끝은 향대했다.



단순한 벽 채색, 벽화 그리기로 마을주민이 모여 한 걸음씩 소박하게 천천히 시작하였으며 서로를 알게 되고 변화된 동네를 바라보며 마을 축제를 진행할 수도 있게 되었다.

처음 기획한 축제라 미숙했지만 봄, 가을 두 번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동네 분들이 모여 앉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후원받은 막걸리와 전, 국수를 대접하여 만남과 이야기 장을 만들고 자원봉사로 흔쾌히 공연을 해주시기도 하여 행사장이 활기차졌다. 많은 분이 만족을 느끼며 감사의 인사를 주고받았고, 20년도 마을 공모사업을 마쳤다.

마중물이란 말의 의미는 예전 펌프로 물을 먹던 시절에 한 줌의 물이 있어야만 맨 아래 깊숙이 있는 물을 끌어모아 팔팔 나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너무 우리 공동체와 어울리고 멋진 말이라 생각하여 공동체 명으로 정하였다.

다소 생소하게 느꼈던 말 “마중물”은 어르신들에게는 추억의 단어지만 나 역시 몰랐던 단어의 소중한 뜻처럼 마을과 주민들에게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모임



벽화 그리기 중 페인트 묻은 모습



마을 축제(후원받은 음식)



마을 축제



05 공동체 구성원들의 “활동 소감”



임0연 님

처음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였을 때는 단순히 지저분한 골목길을 색칠해보자는 의미로 시작하여 두 번째 마을 잔치까지 기획하고 2차례 행사를 치렀습니다. 처음에 아이들과 벽에 색칠하러 나갔을 때는 그 더운 날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미상한 사람 보듯이 지나쳤던 분들이 다음 해에는 먼저 인사를 건네주고 그림 그리시는 분이 누군지 궁금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셨을 때는 그동안의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엄마의 성화에 이끌려 나왔던 아이들도 차츰 변해가고 본인들이 해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던 공동체 활동. 올해도 다시 도전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공동체 활동이란 누군가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나 스스로의 보람을 느끼며 행복을 나누는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마중물' 뜻이 한 종의 물이듯 서서히 스며드는 동네 분들과의 소통과 행복이 훗날에는 팔팔 쏟아져 나오는 펄펄 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0구 님

사농동에 몇 십년동안 살았어도 누구 하나 관심도 없고 삭막했던 우리 마을에 어느 날 벽을 칠하고 꽃을 심고 동네를 가꾸는데 도와 주실수 있느냐고 물어 봤을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혼자서 하나하나씩 아이들과 묵묵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꽃 심는 일과 풀 뽑기, 동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하면서 점차 변해가는 동네를 보니 행복하고 집에 들어오는 골목길이 환해져서 좋았습니다.

예쁘게 단장하고 깨끗하게 변한 동네에 구경 오라고 경로당에 가서 자랑도 하고 벽에 구름을 그릴 때는 직접 붓을 주어 못하는 색칠이지만 열심히 하여 우리집 벽 구름은 제가 칠한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보기만 하는게 아니라 직접 참여 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 마중물 마을공동체가 사업을 꾸준히 하여 동네를 꾸며주었으면 좋겠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해서 옥산포 마을이 유명 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0제 님

봉사단체에서 만난 임정연씨가 어느 날 저의 동네에서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여 동네를 살펴보고 제의가 왔을 때 어렸을 때 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곳이며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우리 동네를 위해 움직여 준다는 것에 대해 고마움은 느꼈지만 직장 관계로 자주 나오지 못할거라 망설이자 함께 동참해주고 의견을 주는 것 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말에 공동체 일원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참여가 힘들시에는 다른 분을 보내 함께 하려 했으며 현재 저희 옥산포가 점차 환해지는 것을 보니 함께 동참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 활동은 꼭 시간을 많이 내는 것 보다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고 며칠 전 벽에 페인트 채색을 한다기에 휴가를 내고 지인들과 땀 흘리고 숲 한잔 하며 저의 손길로 아름답게 단장한 벽을 보니 흐뭇하며 제 자신도 자랑스러워 졌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큰 동그라미가 되는 공동체 활동에서 나태 해져있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 해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준 마중물 마을 공동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되도록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0자 님

시집와서부터 살게 된 옥산포는 남편이 3대째 옥산포에 살고 있고 저는 현재 통장업무를 맡아 살고 있던중 우연히 찾아와서 저의 동네에서 하는 활동이니 통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기에 과연 무얼 하겠나 했는데 지저분한 회단을 정비하여 꽃을 심고 칙칙한 벽에 채색하고 그림도 그려가며 동네 골목이 하나씩 하나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식당일을 하면서 활동을 많이 못 해준 게 늘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산포 잔치에는 솜씨를 발휘해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국수와 부침개를 자진해서 만들어 주었더니 다들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어 뿌듯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로 서로를 잘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데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좀 더 친숙히 동네분과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처럼 동네 입구에서부터 환히 비춰주는 흰 구름처럼 뭉실뭉실하고 깨끗하고 행복한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옥산포마을이 옥산포 전투처럼 사람들이 기억 해주는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님

현재 저는 사농동 경로당에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농동을 정비하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공동체 구성에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참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에 반신반의 하면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고 젊은 여자분이 과연 제대로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조용조용히 하나하나씩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니 우리 동네에 인재가 들어왔구나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경로당 앞에 꽃들도 심어지고 동네가 파랗게 하얗게 물들어 가고 잔치도 주최하여 사람들과 소통과 문화의 장이 되었던 옥산포마을잔치. 코로나만 아니었다라면 좀 더 멋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리는 아쉬움과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함이 들었지만 늘 응원 하며 앞으로 동네를 위해 마중물 일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며 멋진 사농동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활동하는 동안 작은 힘이었지만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네를 위해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군

맹글 청소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 📍 지역명 홍천군 홍천읍
- 📅 세부활동 마을의 소식을 만들기 위한 학생교육과 편집, 영상제작 및 팟캐스트녹음
- 📅 지원기간 2020년
- 👥 참여인원 40명

01 공동체 형성과정

우리 아이들이 행복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幸福] 할 수 있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인데, 아이들의 질문에서… 시작된 마을 공동체. 어떤 학생은 삼성에 입사하는 것이 꿈이고 어떤 학생은 삼성 같은 기업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어떤 이는 취업 후 임원이 되는 것이 꿈이고 어떤 이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첫 시작을 할 때 청소년들은 재미있는 일, 신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른들은 피곤한 일, 귀찮은 일,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이러한 생각으로 가치 있는 일을 찾는 목적이 아닌 쓸모있는 일을 우리 마을에서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첫 시작을 하게 되었다.

☰ 생각을 나누는 활동

생각은 1차 언어, 문자는 2차 언어
말이 먼저가 아니라
생각나누기가 먼저

📖 교육_활동의 융합

교육은 투입, 활동은 산출
투입 없는 산출은 한계가 있고,
산출 없는 투입은 배설구 없이
음식만 먹는 격

👥 관계를 고려한 교육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야하는 공동체
경쟁과 갈등보다 협력과 존중을 먼저
배워야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 소외 없는 적극적 참여

똑똑한 몇 명이 아니라, 소외 없이
활동에 참여 적극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의 일부를
그렇게 바꾸자!



브레인라이팅 기법을 활용한 이야기 나눔

02 공동체 활동의 시작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공동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마을 미디어를 통해 아이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마을을 이야기 화면에 담기로 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멘토를 만나고, 미디어 영상 제작과 편집을 배우고 우리의 이야기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지역주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함께 지역의 문화 및 살아가는 이야기를 수다스럽게 표현하고 말할 기회를 주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미디어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하였다. 그래서 "1인 방송" "라디오" "팟캐스트"를 선택한 이유는 스마트한 환경 속에서 오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 형태로 뉴스나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첫해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당사자들의 뜻과 노력이 담겨야 지속가능함을 알게 되었고, 외부 도움에 의존하는 사업은 지원이 중단되거나 사업 완료됨과 함께 사라져, 자발성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느껴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지원 전반에 있어 자발성과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



다양한 체험 및 청소년 의견수렴

03 공동체 활동의 성과

“홍천! 미안 프로젝트” 홍천! 미디어로 인사해요 “안녕”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능동적이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제작 활동을 통해 토론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미디어를 활용하여 방송 제작을 체험하였고, 미래 사회에 대한 진로를 탐색하는 등 다양한 소질 개발 및 진로 탐색을 통하여 진로에 대한 교육도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문제해결식 토론은 일종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처럼, 제한된 시간 내에 팀원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토론하며, 역할을 분담해 1인 미디어를 제작 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프로젝트 토론에서는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탐방하고 알아가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큰 효과를 보았다.



마을미디어 활동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내일은 더 친절하고, 따스하고, 사려 깊은 존재가 되기를, 내년엔 좀 더 지혜롭고, 창조적이며, 이토록 머나먼 당신의 마음을 향해 좀 더 가까이, 불현듯 성큼 다가가는 미디어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기원하고 준비하고 있다.

04 공동체 활동을 마치며 “.” 하나의 차이



미디어를 활용한 팟캐스트, 유튜브 방송 제작, 토의토론을 활용한 흥천읍 사랑(愛)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 가족과 지역사회 또는 기관의 관심을 이끌고, 다양한 지역과의 교류로 다른 지역의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맹글 청소년교육사회적협동조합에 마을공동체란 ‘저절로’도 ‘탄탄대로’도 아니다. 현재 ‘?’에서 ‘!’로의 진행 과정 중에 있다.

흥천 미래를 토론타다 ‘청소년 100인 원탁’

흥천 미래를 토론타다 ‘청소년 100인 원탁토론’ 개최

김종민 기자 | © 흥천 20190621 16:25 | @맛공0



영급청소년교육사회적협동조합(대표이사 이광욱), 한림대일본학연구소(소장 서경은)가 주최하고 강원도교육청, 국가보훈처,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비룡소,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흥천교육지원청이 후원한 민주시민교육 캠프가 초등, 중등, 인솔자, 진행요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3일 오전10시 흥천 크리스탈 컨벤션에서 개최됐다.



마을공동체를 함께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관심과 동기부여



05 공동체 구성원들의 “활동 소감”



장0진 님

안녕하세요~

명길청소년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입니다. 홍천은 지역이 넓어서 지리적으로 멀다는 느낌이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언제나 가까운 곳, 그곳에 마을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오안초 지역의 아이들은 즐겁게 영상촬영에 참여했고, 그 즐거움은 마을의 이야기만 담어내는 즐거움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을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모습을 그려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수 있어서 고맙다” 라는 말을 들었는때, 마을공동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뿌듯했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의 핑크빛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0옥 님

안녕하세요~

“마을공동체”란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시골마을에서 생활하는 가족? 아니면 여러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만든 공동체?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공동체”에서는 조금 특별한 의미로 쓰입니다. 마을공동체의 역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를 고른다면 마을과 학교의 역할입니다. 학교는 공동체의 공간과 교육으로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전수해주는 역할이라면 마을은 동지 같은,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오안초 친구들은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내고장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 발전하는 것을 알게해주었습니다. 마을공동체라는 생각이 없이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기 힘들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자라 사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을공동체가 모이고 모여서 지역을 이루고 국가를 이룬다는 마인드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엄0석 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는 어른과 아이들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눈으로 덮여 있어 길 안과 길 밖이 구분이 되지 않을 때 앞서 가는 어른들은 길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온 신경을 세워 길을 걷습니다.

그렇게 조심조심 걸어간 길 위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게됩니다. 앞선 어른에게는 길에 쌓인 눈은 길을 가리는 방해물이 되지만, 뒤따르는 아이들 에게는 고마운 눈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들은 눈 위에 선명한 발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 아이들은 길을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길 위에 쌓인 눈은 방해와 도움의 양면성을 갖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어른의 역할을 하면서 마을의 이야기, 아이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쪽~ 기록하고 싶습니다.

 **황0라 님**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영상을 최종 마무리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길 했어요. 지금 아이들이 '미디어로 내촌지역 영상제작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뭐냐'고 물었어요.

제 답변은 우리 협동조합의 오안초지역 마을미디어 영상제작 활동을 통해 오안초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한다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 답변이 제게 플러스 요인이 되었던 듯해요. 지금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활동을 통해 마을미디어와 오안초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태백시

사랑의 베이커리 나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빵사랑나눔

-
- 📍 지역명 태백시 황연동

 - 📅 세부활동 빵만들기체험과 소외계층 빵나눔 플리마켓

 - 📅 지원기간 2020년

 - 👥 참여인원 20명

01 공동체 형성과정

빵으로 사랑 나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배경은 소외된 지역 아동들과 어르신,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다문화 가족 또는 장애 가족 아동들에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공동체에 이바지하고자 모이게 되었다. 이렇게 모인 사랑의 베이커리나눔 공동체는 지역 내 농민들이 정성을 다해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빵을 만들어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홀몸노인 어르신들이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어버이날에는 시장님과 함께 빵 만들기도 하여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자 즐거운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사랑의 베이커리나눔(빵사모)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 봉사는 물론 아동과 청년, 어르신들에게 미래 진로 교육을 위한 길잡이가 되게 하려고 제빵기술 습득을 도와 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진로선택과 새로운 창업을 위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과 함께



초등학교 학생과 병안들기 체험



어버이날 시장님과 태백노인복지센터

02 공동체 활동의 시작

코로나19 확산 예방홍보 및 순례자의 집, 청소년상담센터 덧버선 전달



사랑의 베이커리나눔(빵사모)은 '나눔은 함께 할수록 기쁨은 배가 된다'라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구성원들 모두가 공감한다. 그래서 적극적이며 솔선수범하는 태도로 빵 만들기와 나눔에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우리 공동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차역, 시외버스터미널, 보건소 등 공공장소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빵사모는 시민들에게 마스크 나누어주기, 발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법 등 코로나19 관련 홍보를 지속해서 하기로 했다.

빵사모는 또한 코로나19 진료와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한 의료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건소와 의료진, 그리고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태백시 관내 8개동에 따뜻한 빵을 전달하는 것으로 2020년 공동체 활동의 포문을 열었다. 코로나19로 더욱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에게도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빵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받은 사례금 전액을 덧버선을 구매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순례자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전달하여 지역에 훈훈한 미담을 꽃피우고 있다.



03 공동체 활동의 성과

생애 첫 빵만들기 체험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웃을 위한 사랑의 공동체이자 빵 나눔 단체로 지역 내에서 인식이 생기게 되자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걷기 행사'에 도움 요청이 왔으며, 이에 빵사모는 봉사자로 참여해 장애인들에게 빵 나눔 행사와 행사 진행 보조 봉사자로 큰 도움과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또한,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숲길을 걷고 숲 해설을 듣게 되니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상쾌해졌다고 감사함을 전했고, 행사에 참여한 빵사모 공동체원은 돌레길 걷기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빵사모는 지역아동센터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족과 장애 가족은 취약계층 등 체험학습과 나눔 행사를 지속해서 계획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각장애인 걷기 행사



장애가족 빵만들기 체험



청각장애인 걷기 행사



조손가정 빵만들기 체험

04 공동체 활동을 마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랑의 베이커리나눔(빵사모)은 2021년 3월 제과제빵 체험장(봉사관) (어디에 장소기록)을 기부담으로 준공하여 개관기념 행사를 했다. 이날 개관 기념행사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과 이상호, 김혁동 도의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빵사모(대표 김욱상)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빵 나눔을 갖기로 하고 빵을 만들기 위한 제조시설을 구축하여, 백두대간 산양목장 산기슭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곳 체험장에는 빵 제조를 위한 제조시설과 실습 시설 홍보부스와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방목한 산양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재료로 신선한 빵 만들기에 노력해서 일자리 창출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올 한해는 조금 더 강도 높은 봉사활동을 할 계획으로 특히 취약계층이나 군부대 위문 등 빵 나눔을 지속해서 펼칠 계획이다.



개관기념 행사



유관기관 기념사



나눔 활동을 위한 사랑의 빵 만들기



군부대 빵나눔 행사

05 공동체 구성원들의 “활동 소감”



최0애 님

처음에는 제목만으로 참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도 웃었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연계하면서 막상활동을 하다보니 참 보람차고 봉사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다고 몸으로 느낍니다. 현 사회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독거어르신, 요양원 어르신, 군 장병, 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관공서 직원 각 단체회원들의 체험학습으로 사회의 구석구석 모든 곳에 손길이 닿는 것은 참 보람차고 부듯합니다. 작은 재능기부로 초등학교들의 고사리 같은 손놀림, 어르신들의 서투른 손놀림들이 참 좋은 체험이자 신체의 오감을 움직여야 하는 또하나의 신체운동도 되죠. 손을 움직이고 고소한 버터와 향냄새도 맡고 눈으로 부풀어 오르는 모습에 행복해 하고 이것이야말로 소리없는 행복의 전도사가 아니겠어요. 끝으로 부탁해보고 싶어요. 따뜻한 빵사랑 나눔이 지속적으로 계속이어지는 지원요청과 수익성있는 컨설팅을 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백0옥 님

마을공동체란 실과 바늘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없어서는 안되는 서로와 서로 마을공동체란 봉사로 시작하고 베푸는 공동체의 따뜻한 마음, 독거노인, 1인가구, 참 흔한 말 같지만 요즘 같이 어려운 순간순간 마다 느끼는 따뜻한 봉사에 손길 그대로 살아있는 사랑은 끝나지 않음을 느낍니다. 삶의 따뜻한 빵사랑 나눔을 하면서 더 많은 감사를 하는 달콤한 사랑빵 정말 좋은 봉사임을 말하고 싶어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힘들고 외로움에 지친 마음 따뜻한 빵 전달을 통해 행복전도사가 된 것 같습니다. 지역에 빵사랑이 있어 좋아하시는 모습에 어느 봉사보다도 보람을 느낍니다.

김0란 님

요즘처럼 나홀로족 고독사가 난무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요즘을 관념을 바꾸고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야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알아주는이 없어도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과 공동체를 위하여 열심히 맘 흘리며 봉사하는 재능기부의 천사이자

파수꾼 빵사모. 앞으로도 마을공동체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지혜와 협동의 즐거움을 사회의 어두운 한 부분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작은 재능기부이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마을공동체와 함께 한다면 정부가 없어도 세상은 환하고 따뜻한 밝은 세상이 되도록 끊임없는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오숙 님

빵사모! 참 이색적인 모임이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두고 활동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단체보다도 회장님이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일하시기에 함께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났습니다. 빵사모는 저에게 삶의 보람을 일깨워 주었고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봉사 회원들 간 화합과 소통으로 서로 마음을 열고서 따뜻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하니 참 행복합니다. 육체적 노동이라 조금힘이 들지만 여러 사람과 즐겁게 하다 보니 재미 있습니다. 빵사모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은 독거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빵 만들기는 손을 움직여서 하는 작업이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어르신들께 말씀드렸더니 좋아하시면서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회원들이 빵을 만들어서 요양원, 노인복지센터 등에 직접 배달 하니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겨주시고 토닥여 주시는 어르신들에게 빵사모는 웃음과 행복을 전파하는 바이러스였습니다. 특히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장난기 어린 체험을 하며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부듯 했습니다. 빵이 발효되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봉사활동도 사회 곳곳에 사랑의 바이러스가 되어 이웃 간에 웃음이 그치지 않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 님

빵이라는 친근하고 추억이 가득한 식품을 만들어 나누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한끼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라고 느꼈다. 어르신들의 경우 집에 혼자 생활하면서 세끼 식사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파운다는 의미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만들어 따뜻한 빵을 나눠드리면 오늘 점심은 빵을 먹으면 되겠다면서 함박웃음을 지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듯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이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영마의 마음으로 좀 더 영양가 있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매일 좀 더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지역에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한끼 식사가 될수 있고 가정형편상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힘들게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간식인 빵을 앞으로도 계속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김0상 님

빵 만들기 체험이 있는 날은 설렘 가득한 시간을 기대하며 어르신들을 만났다. 고소하고 폭신폭신했던 빵을 함께 만들기 위한 만남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그냥 만남 자체였다. 어색한 첫 만남에도 슬며시 웃어주며 반겨주는 체험은 서로에게 친근하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생전 처음 보는 빵 공장의 내부에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들은 함께 반죽을 만지고 빵의 형태를 완성해나갔다.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후빌 때 즈음에는 어느새 친정 엄마처럼 따뜻한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고사리 손으로 만드는 아이들은 다양한 재미거리였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조금조금하고 검버섯이 피어 있는 손은 허안 반죽과 대비되어 더욱 삶에 시간이 비추어져 안타까워 보일때도 있었지만 유치원생처럼 즐거워 보이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덩달아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돌아가는 길 차량에 오르며 찾아오는 이 하나 없고 그리워하는 이 하나 없어 늘 외로웠는데 찾아줘서 고맙다는 어르신 혹은 내가 언제 이런 곳에 와보겠냐며 오래 살다 보니 신기한 구경 했다는 어르신 또는 혼자서 끼니를 매번 챙겨 먹기 귀찮고 힘들 때 종종 빵으로 한 끼를 넘길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따끈하고 고소한 빵을 먹을 수 있어 좋았다는 어르신 등 그저 빵 하나에 감동하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 그들의 모습에 내가 그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다 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사리 손으로 만들어 들고 가면서 빵에 대한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 함박 웃음을 지으며 돌아가는 발걸음과 함께 내 마음이 갓구운 빵처럼 따끈따끈하고 폭신폭신했던 지는 하루가 되었다. 빵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기에 이런 다양한 체험도 하고 또 지역을 위한 빵봉사도 할 수 있어 행복하다.





횡성군

아띠맘

마을 안에서 돌봄과 성장을 꿈꾸는 마을공동체 아띠맘

📍 지역명	횡성군 서원면
📅 세부활동	그림책수다[알시탐], 역량강화_책놀이지도사자격과정, 교육봉사활동
📅 지원기간	2020년
👥 참여인원	27명

01 공동체 형성과정

결핍은 마을공동체를 시작하게 한다



마을공동체의 시작은 우리가 사는 마을에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고 불편함이 있기에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활동가와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가 형성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과정, 그것을 마을공동체라고 부르게 된 것 같다.

우리가 사는 지역도 무엇인가 결핍을 느끼고 있어 마을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아 활동가와 마을공동체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행정적으로는 횡성군에 속해 있지만, 지리적으로 횡성읍과는 멀고 원주, 홍천, 양평과 가까우며, 교육과 문화생활을 누리며 아이를 키우기에는 어중간한 지역인 횡성군 서원면, 그곳에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아띠맘'을 시작하기로 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를 키우기 위한 교육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는 것이다. 읍에선 다양한 교육,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들이 있지만, 면 단위의 지역은 교통의 문제, 수요의 문제 등으로 제외되고 외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횡성군 전체 노인 인구수의 증가로 노인에 대한 복지, 보건, 교육, 문화 활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률은 높은 편이나 아동에 관련된 서비스는 미흡한 편이다.

횡성군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장려지원금, 산후건강관리비 등의 지원금이 다른 곳보다는 좋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교육과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은 아동·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제일 큰 원인이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서원면도 초등학교의 저학년은 학년별 학급당 4명 이상의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교육과 문화생활 등의 이유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6학년 학생이 1명이거나 중학교 입학생 중 지역 청소년이 한 명도 없는 등 심각한 인구 유출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이 지역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자연스럽게 읍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냥 두고만 보다가는 그전에 중학교가 사라지고 이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교육과 문화 활동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지역에 함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020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시작하기 전 2019년부터 서원초등학교 학부모 동아리 '아띠맘'을 시작으로 그림책 수다[알사탕] 활동과 공동육아를 함께 진행했다. 이러한 활동은 2020년 마을공동체를 시작하기 전 구성원들의 친밀감을 높이고 공동체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02 공동체 활동의 시작

코로나와 함께 시작!!



2019년부터 시작한 공동육아, 그림책 수다[알사탕], 교육봉사활동 등의 공동체 활동은 구성원들에게 마을공동체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도를 높여주는 계기가 되어서 2020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모두의 응원 속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해왔던 활동을 더 구체화하고 전문적인 활동으로 변화시켜 교육과 문화 활동을 자급자족하자는 것이 목표였는데 사업의 시작부터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다.

아띠맘에서 계획했던 활동은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들이 주를 이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사업을 시작하는 상반기 내내 계속되었다.

1, 2월이면 코로나가 사라지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희망은 점점 없어지고 이 대로는 시작도 못 하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 공동체 구성원들과 메신저로 회의를 진행했었다. 구성원 모두 길어지는 거리두기 상황과 가정 보육으로 힘들어했는데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 곧 활동할 수 있으리라 예측되어 3월 이후 다시 활동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공동육아(집콕놀이)

하지만 3월도 역시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우리도 집을 벗어 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정 보육의 한계를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공동육아를 집콕육아로 변경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육아를 시도해보기로 하였다.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만들거나 공예 키트를 각 가정에 제공하고 야외에서 만나 보드게임을 대여하기로 했다. 항상 메신저로 서로의 놀이 활동을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지루했던 가정 보육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의 활동이 생기니 메신저에서 즐거운 대화들이 오고 갔다. 마을공동체의 활동이 아이들을 돌보기도 했지만,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힘들었던 엄마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돌 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집콕놀이 활동을 시작으로 마을공동체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생겨 전반적인 사업을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 보류하기로 했다.

6월 첫 대면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마을공동체 아띠맘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03 공동체 활동의 성과

코로나시대 마을공동체는??



코로나로 인해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 시기가 늦어지면서 아띠맘에서 실무자의 역할을 맡은 나로서는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한 변경과 실행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 그럴 때마다 공동체 대표님과 우리 회원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었다. 2020년에 진행하고자 했던 활동들이 기존의 계획에서 변경된 부분들도 많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하였기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가정 보육을 돕기 위해 공동육아를 집콕놀이로 변경하고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시작하고 꾸준히 하고자 했던 것들이 다시 '마을공동체 아띠맘'을 움직이게 해줬다. 6월부터 그림책 수다[알사탕]이 시작되면서 그림책을 매개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와 문화 활동을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보드게임도 함께 배워나갔다. 코로나로 단절되었던 삶이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다.

하반기에는 역량 강화-책 놀이 자격증 과정을 실행하고자 하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연장되면서 기존에 계획했던 장소의 대관이 어려워져 장소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횡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낭만 서행'의 도움으로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을 대관하고 책 놀이 자격증 과정을 아띠맘과 새마을문고 회원이 함께 수강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책놀이 자격증 과정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타 마을공동체와의 연대로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 이 경험을 통해 마을공동체 간의 연대와 마을공동체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역량강화 사업은 회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아띠맘 회원분들 개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가치와 성장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고 수업을 계기로 모두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 전업주부로만 지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으시고 공부를 시작하고 교육봉사활동에 자신감이 생겨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시작을 못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 놀이 자격증 과정을 완료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봉사활동이 시작되었다. 작년에는 서원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초등학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어 그것 또한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은 다른 지역에서 거주 혹은 근무하는 외부 강사 출입에 제한이 생겼고, 그로 인해 아띠맘의 활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였고, 어린이집에서 아띠맘의 교육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다.



교육 봉사 활동

아띠맘 회원의 반 이상이 어린이집 학부모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이들도 엄마가 와서 친구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어주고 놀이를 하고 우리 엄마가 오늘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에 매우 즐거워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띠맘이야.'라고 말할 때 마을공동체의 역할과 아띠맘이 마을에서의 역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함께해야 하는지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띠맘

앞으로 아띠맘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 외의 기관에서는 아띠맘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라는 것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로나로 실행하지 못한 현장학습 관련 사업을 '메리 크리스마스 아띠맘' 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지역의 관공서를 방문하여 가정이나 기관 등으로 루돌프가 되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전달하며 아띠맘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다.

2020년만큼 힘든 상황이 없었던 것 같다. 질병으로 인해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할 수 없었던 한해였다. 하지만 '마을공동체 아띠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 한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 어려움 속에서 의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마을공동체인 것 같다.

코로나의 시작으로 마을공동체의 장애가 어두웠지만, 코로나와 함께해보니 더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04 공동체 활동을 마치며

**새로운 시대, 포기가 아닌 기다림,
다시 만나요!**



마을공동체 아띠맘은 마을 안에서 돌봄과 성장을 비전으로 마을 안에서 교육과 문화 활동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마을공동체의 활동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혼자가 아닌 우리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의사소통과 사업의 변경, 수정, 그리고 실행으로 사업을 끝까지 완료할 수 있었다. 아이들을 마을에서 돌보고 성장시키기 위해 시작한 마을공동체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성장하게 해주었다. 그로 인해 구성원들 개개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더욱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높여주었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주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도 했지만, 더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다. 어려움 안에서의 성장은 그 어떤 성장보다 눈에 띄고 값진 것 같다. 모든 마을공동체가 그러했듯 어렵고 힘든 2020년을 잘 버텨왔기에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시대의 마을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 같다. 하지만 아직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지속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마을공동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공감의 낮다는 것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다. 지역의 공간지원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높아진다면 마을에 많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마을공동체라는 생태계가 구축되어 앞으로 마을에서의 삶은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2020년의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은 우리가 꿈꿔왔던 것들을 현실에서 실행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였다. 하지만 마을공동체 아띠맘은 21년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닌 기다림이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까지 지원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림책 수대[알사탕] 활동과 지역 내 작은 도서관을 주축으로 할 수 있는 작은 교육 문화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가며 지역에 녹아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자 한다.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발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 날, 다시 만나요!

05 공동체 구성원들의 “활동 소감”



윤0정 님

처음 마을공동체를 시작했을 때는 마을공동체가 뭔지 잘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우리끼리 배우고 재미있게 노는게 공동체겠지.'라고 생각하고 활동을 했는데 한해한 1년을 뒤 돌아보니 이제는 마을공동체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무언가를 함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참여해준 우리 구성원들에게 감사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주고 포기하지 않고 1년의 사업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역량강화 활동 때도 자격증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준 리투와 카비타, 한국어도 쉽지 않아서 시험을 본다는 게 정말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해주고 합격까지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해한 활동들이 구성원 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고 우리를 더 공동체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줘서 앞으로의 아피맘 활동이 기대됩니다.

김0정 님

마을공동체가 너무 하고 싶어서 동네 엄마들을 집에 초대하고 마을공동체를 설명하고 함께 하자고 이야기 나누던 때가 기억납니다. 너무나도 생소한 마을공동체를 이해해주고 모임에 참여해주던 구성원들에게 제일 감사합니다.

지역 내에서 마을공동체를 이해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항상 지지해주고 함께해준 아피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연대하고 지역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주었던 기관들과 낭만서행 대표 김지희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만 가득한 활동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영두도 못 낼 일을 우리가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서원은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활동이 변화의 씨앗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0영 님

도시에서 살다 시골로 이사와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연고도 없는 곳에서 교육이나 문화를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게 개인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느낄 때 좀 아티맘을 만나 많은 부분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그림책 수다를 함께하고 자격증과정도 함께 하면서 마을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길어지는 가정보육과 고립생활로 힘든 부분들을 아티맘에서 많이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백0연 님

아티맘 활동을 하면서 동네아이들, 엄마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코로나로 대면모임은 자주 가질 수는 없었지만 비대면으로도 연락도 자주하고 각자의 활동을 이야기 나누며, 코로나가 권창을때는 만나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가정보육기간이 길어지면서 아티맘에서 제공해 준 집콕놀이 세트와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티맘과 함께한 한해 동안 아이들이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고0아 님

아이 셋을 키우느라 모임에는 자주 참여하지 못 했지만 언니들이 잘 이끌어 주고 여러모로 도와줘서 2020년 한해는 아티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코로나로 가정보육이 길어지고 힘들 때 집콕놀이 세트와 보드게임 대여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집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자연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외딴 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매우 힘듭니다. 그럴 때 마다 마을공동체 아티맘이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지역에서 교육과 문화활동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는데 마을공동체를 통해 이렇게 좋은 인연들과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타 님

네팔에서 시집와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해보았는데 마을공동체 활동은 재미났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한다는게 즐거웠고 네팔 그림책을 모임에서 소개하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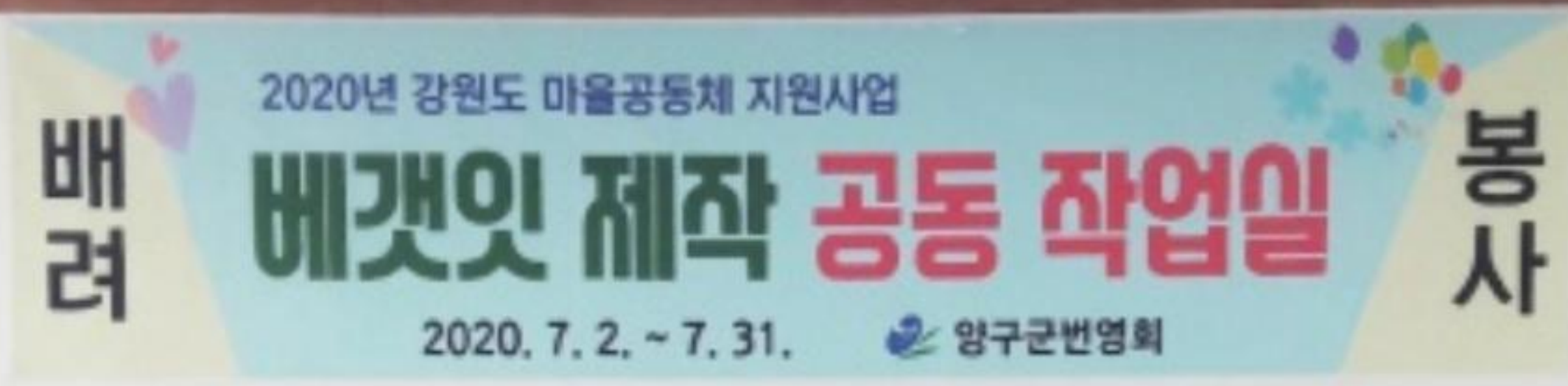
그리고 자격증 수업을 받을 때 한국어 때문에 많이 어려웠지만 언니들이 많이 도와주고 선생님도 쉽게 가르쳐주셔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오 님

카비타 언니와 같은 나라에서 와서 언니의 소개로 아띠맘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어린이집 같은 학부모인 엄마들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혼자서 남자아이 셋을 키우는게 쉬운일이 아닌데 아띠맘에서 많이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자격증도 합격하고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봉사활동을 했던 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선생님이라고 말해줬던 게 행복했습니다.





양구군

양구군 번영회

행복한 마을은 양구군 번영회의 섬김으로 부터

📍 지역명	양구군 양구읍
📅 세부활동	독거노인세대 베게 제작 지원사업, 폐자전거 수집 재활용 사업
📅 지원기간	2020년
👥 참여인원	30명

01 공동체 형성과정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우리 공동체는 양구군 발전과 번영을 위한 행복한 양구 가꾸기라는 목적으로 관내 30~60대 각계각층 인적 자원들로 구성되어 각 분야에 참여와 추진을 진행하는 단체이다. 공동체의 목표와 비전은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회·단체 활동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 편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양구 만들기이다.

양구군은 군사 접경지역으로 각종 문화, 예술 활동의 혜택이 적은 지역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개체가 필요하였다.

산악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주민의 건강한 정서를 위한 배려차원의 사업이 절실하여 양구군 번영회를 만들게 되었으며, 주민의 알 권리, 기존제도를 편리하게 개선하고, 시책 개발사업의 연차별 추진과 환경, 질서, 배려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양구를 만드는 것이다.



02 공동체 활동의 시작

**독거어르신들의 위생관리 향상과
환경저해 요인 제거 재활용을 통한
저탄소 운동 추진**



공동체 회의

베개와 베갯잇 제작 지원, 폐자전거 재활용 지원팀으로 구분하여 총 13명이 토의를 통한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각각의 임무 분담을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베개와 베갯잇 제작 지원팀은 6명으로 구성되었고, 폐자전거 재활용 지원팀은 7명으로 역할을 나누었다. 독거세대 베개 제작 지원사업 관련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바사모"(바느질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 11명과 재능기부 형태의 공동 작업을 협의하였고, 폐자전거 수거를 위한 관내 이장님과 지역 내 아파트 관리소장님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의 및 간담회, 식사 등 의사소통을 하며, 마음 열기를 통해 사업수행계획 수립하였고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베갯잇 제작 작업실

03 공동체 활동의 성과

긴 장마와 코로나19도 극복한 공동체



우리 양구군 번영회에서는 1단계 발아 과정의 사업은 두 가지로 선정해서 추진했다. 첫 번째는 노인 독거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베개 제작 전달, 두 번째는 지역 내 아파트에 방치되어있는 자전거를 수거 재활용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사업이었다. 처음에는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해결되어서 두 가지의 사업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지역 내 어르신 부부와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베개 제작 전달 사업은 '바사모'(바느질을 사랑하는 모임) 11명의 회원과 함께하는 공동작업으로 사업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약 3개월간 상호 의견을 나누며 사업을 완성하였으며, 특히 '바사모'와의 공동제작을 통해 주민의 화합과 나눔의 공감을 확장하였고 2021년도 사업에도 동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베갯잇 제작

폐자전거 수거 재활용 사업은 지역 내 방치되어 미관을 흐리는 흉물이자 아이들에게는 위험물이었던 폐자전거를 수거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정비해서 재활용한 자전거는 누군가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할 수 있었고 둘째, 작은 힘이지만 대기오염 탄소 줄이기에 일조했으며 셋째, 지역 내 이장님, 아파트 관리소장님과의 관계 형성이 되어 지역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회의문화를 조성할 수 있었다.



배게 제작 전당



폐자전거 재활용

04 공동체 활동을 마치며

“의사소통의 활성화 / 지역 내 주민과 연계한 사업 추진”



마을 내 뜻을 같이한 30~60대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모여, 특정한 하나의 문제점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각각의 의견이 다르고 제안한 문제점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서 때론 의견충돌이 있었지만 반복되는 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마을의 문제점과 또 그것을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해결하고자 목표로 한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다. 지역 내 주민과의 협조적인 관계를 갖고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오찬 등 만남을 통해 서로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혼자 사는 마을이 아닌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며 마을 내 약자를 위한 활동을 통해 다 함께 행복한 마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양구군 번영회”라는 공동체는 결속력 있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이미지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내부적 측면으로 양구군 번영회 회원의 결속을 다지는 동기부여로 다양한 회의 및 간담회를 진행하여 의사소통의 창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인성을 갖춘 사회단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외부적 측면으로는 약자에 대한 배려정신으로 어르신 공경에 대한 홍보의 계기가 되었으며, 자전거 재활용을 통한 대기오염 확산방지에 이바지하였다.

방치된 흉물수거 → 환경정화 및 위해요소 제거, 자전거 타기 운동 → 탄소줄이기 → **클린환경**



평가 및 결산



동해시

초록 도서관

동해시 천곡동, 평릉동 지역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성장하길 노력하는 교육, 돌봄 공동체

📍 지역명	동해시 천곡동, 평릉동
📅 세부활동	자녀 돌봄, 독서/체험/놀이/체험 프로그램, 부모교육
📅 지원기간	2021년
👥 참여인원	60명

01 공동체 형성과정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만나든 친구가 될 수 있다. 2015년 봄, 동해시 천곡동에 위치한 초록도서관에서 그런 '같은 질문'으로 시작된 만남이 있었다. 마을의 작은 도서관인 초록도서관을 통해서 만나게 된 우리들은 서로의 얼굴이 익숙해질 무렵, 각자의 고민들과 걱정들을 나누게 되었다. 3-6세 자녀들을 데리고 온 젊은 엄마들이 대부분이었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대화 주제는 역시 '자녀 교육'이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공통 질문이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걸어보는 길 앞에서 막막함을 느꼈던 것이다.

젊은 엄마들이 이러한 고민을 가질 만한 지역적인 상황도 있었다. 동해시 천곡동은 동해시 내에서도 공공기관과 상업시설, 주거생활이 복합적으로 형성된 생활 중심지이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시설과 안전한 공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가운 것은 2022년에는 천곡동에 복합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동해 지역은 부모들의 교육열의 편차가 굉장히 크기도 하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어린 자녀들을 밤늦게까지 소위 '학원 뱅뱅이'를 돌리는 가정도 많은데, 반면에 방과 후에는 갈 곳이 없어 철저히 방치되어 있는 어린 자녀들도 많다.



공동체 체험활동



도서관 놀이터_지구본 만들기

또한 동해시에는 해군 1함대가 위치해 있고, 공무원 인구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가정들이 '발령'이라는 이유로, 어린 자녀들까지 새로운 환경에 자주 적응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부모들보다 주변 상황과 환경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어린 자녀들이 마음 놓고 적응을 하는 기회가 필요한 곳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 하나가 필요하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하나의 열쇠가 되어 주었다. 소중한 아이들을 더욱 잘 돌보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을 넘어서, '부모 교육'도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우리 공동체 모임의 발판이 되었다. 그렇게 형성된 '공감대'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또 다른 질문'을 불러 일으켰다.



도서관 놀이터_화분 만들기



도서관 놀이터_LED 토끼 만들기



02 공동체 활동의 시작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질문을 던졌다고 해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초록도서관이라는 하나의 작은 공간에서 던져진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은 막연한 대화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당시에 함께 나누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에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

우리가 함께 구상했던 장기적인 교육 콘텐츠나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강좌들은 불가피하게 적지 않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대안들이었다. 그것을 각 가정에서 지출하기에는 부담이었으나,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준비할 수 있으니 부모들은 더욱 열의를 불태울 수 있었다.

우리는 처음에는 어린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함께 고민하며 첫 걸음을 떼었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부모들도 자녀들과 함께 배워야 한다는 것이 대화를 통해 모아진 모두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관련 지식들을 책을 통해 배우고, 함께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독서모임’을 시작하였다. 그렇게 의견을 나누며 향후 자녀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들을 발굴, 개발할 수 있었다.



도서관 놀이터_전기 회로 만들기



공동체 감장 놀이

그렇게 기획된 자녀 체험 프로그램들은 공공 돌봄의 사각지대인 '토요일 이른 오후 시간'에 운영하였다. 매 회 10-15명의 자녀들이 참여하였고, 초록도서관 공간에서, 공동체 일원이기도 한 독서지도사 선생님이 진행해 주셨다. 화려하고 특별한 것이 없더라도 또래 친구들과 한 공간에서 참신한 체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꽃이 가득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초록도서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자녀들이 참여하는 '토요일 도서관 놀이터'에서는 각종 만들기 활동과 요리 활동, 독서 독후 활동, 놀이 활동, 그리고 실내외를 오가며 체험 활동을 병행하였다.

부모들은 유익한 지식을 배우고, 나누는 '독서모임'에 동참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듣고 싶은 주제를 선정해서 특별강사를 모셔서 '열린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벼운 취미활동을 함께 하며 수다를 떠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자녀, 부모를 불문하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초록도서관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자리에 모인 이들이 서로 삶을 부대끼며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였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초록도서관을 떠나지 못하고 자녀들은 각종 놀이로, 부모들은 수다 한마당으로 공동체의 행복을 키워나갔다.

지금까지 초록도서관 공동체가 수년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럿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완벽할 리가 있을까? 우리도 여러 부침이 있었고, 서로 간의 이견과 갈등도 있었다. 또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대단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때로는 지친 공동체원이 발생하는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공동체에게는 하나의 과정임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조바심 갖지 않고, 느리지만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효율성을 지표로 삼는 '기업'이 아니라, '공동체'이니까.

03 공동체 활동의 성과 초록빛깔로 물들여가기



초록도서관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름은 “초록빛깔 나눔터”이다. 초록도서관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고민하면서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공동체’는 무엇일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물들여가는 것 아닐까? 초록도서관은 늘 초록빛깔로 오롯이 기다리고 있으니, 누구는 빨강으로, 다른 누구는 파랑으로, 또는 노랑, 주황, 보라, 검정 등 각자의 빛깔을 지닌 채로 다가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물들여가는 것이다. 지금껏 초록도서관의 ‘초록빛깔 나눔터’ 사업은 서로에게 조금씩 초록빛깔로 물들여가도록 돕고 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성과를 어떻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으랴. 하지만 그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분석적인 관점으로 공동체 활동의 성과가 관리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볼 때, 우리 공동체에서는 지금껏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후 활동성과를 피드백하는 분석 과정을 소홀히 했던 것 같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활동들을 준비하면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많았기 때문에 활동 후에는 에너지를 재충전하거나, 이어지는 활동들을 새롭게 준비해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 피드백 과정을 통해 활동 분석을 하는 것이 녹록치 않았다.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완해야 할 지점이다.



공동체 김장 놀이



우리 가족 공작 교실

그래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활동성과도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초록도서관은 유익하고 대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자녀들과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우선 유아, 아동 자녀들의 방과 후이나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 그리고 방학 때, 운영되는 '도서관 놀이터'는 초록도서관에 함께 모여 다양한 체험 활동, 놀이 활동, 독서독후활동, 만들기 활동들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선착순 15명 정도가 모였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이후에는 공간의 제약으로 10명 내외로 모이게 되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비대면 활동'을 3-4회 운영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마을공동체 활동도 기획하고 있다. 이 도서관 놀이터에는 5-12세 자녀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인원을 채우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지금은 SNS 홍보를 시작하면 10분 이내에 선착순이 마감될 정도로 활성화된 프로그램이 되었다. 지난 해에는 누적인원 200명 이상이 참여하였고, 아직은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 주민들에게는 그 문을 열어 놓아 자연스럽게 우리 마을 공동체가 홍보되고 확장되어 선순환되는 구조를 갖췄다.



도서관 놀이터_마스크를 만들기



도서관 놀이터_독서 독후 활동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초록도서관 공동체가 처음 품었던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자녀들 뿐 아니라 부모들도 함께 배워야만 했다. 이 시대에는 수많은 가정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음을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자녀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스스로의 성찰도 없었으며, 적절한 교육도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초록도서관 공동체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녀들만 맡겨 놓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녀와 가정을 위해 부모가 자발적으로 배워가고,



도서관 놀이터_마스크홀 만들기



도서관 놀이터_컬러 접시 만들기

성숙해져가기를 꿈꾼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시국에 부모들이 겪는 육아 돌봄 스트레스를 함께 같은 취미활동을 공유하며 해소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자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고민들을 대화로 소통하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 가족 공예와 도자기 만들기 등 특히 젊은 엄마들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슴 속에 묻어뒀던 진솔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부모들을 위한 교육 모임'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소통과 나눔을 통한 힐링과 배움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그룹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서로 간의 충분한 공감을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여한 부모들은 열성적으로 소통하게 되는데, 때로는 눈물이, 또 때로는 웃음이 가득했던 시간이었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참여했던 시간과 함께 가족이 모두가 참여하는 시간도 있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한 날, 음악과 판토마임 공연이 있는 "초록빛깔 콘서트"를 개최해서, 공동체원과 마을 주민들을 포함 약 50여명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초록도서관의 "초록빛깔 나눔터"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서로에게 충분히 물들었을까? 결국에는 어떠한 숫자보다 공동체성을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이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각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의 변화를 통해 감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충분히 물들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스며들 듯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붉은 색 봉숭아 꽃잎을 초록색 봉숭아 이파리와 함께 뽀아 예쁘게 물들인 어린 아이의 손톱처럼 말이다.

04 공동체 활동을 마치며 내가 물 들고 너도 물 들면...



초록도서관에서 자녀들을 위해 함께 노력해보자는 모임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우리들은 커다란 변화나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함께 모인 '우리들'만이라도 행복해져보자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수년 앞을 내다보는 거창한 목표를 두지는 않았다. 다만 한 활동, 한 활동을 재미있고, 행복하게 준비하고 참여하다보면, 우리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녀들과 부모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록도서관 공동체는 소규모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한 걸음씩 내딛다보면 점점 꽃밭에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도서관 놀이터_보드게임 체험



엄마들의 가족 공예

초록도서관은 '초록빛깔 나눔터'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 변함없이 자녀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준비할 것이며, 좋은 부모를 양성하기 위한 배움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기획은 코어가 되는 공동체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구상하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도록 서로를 격려할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점은 미리 예견되었으나, 이토록 길어질 줄 알았던 사람은 별로 없었다. 서로가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공동체성'이기 때문에,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든

공동체에게 있어서 커다란 위기일 수밖에 없다. 공동체원들이 한 장소에 함께 모이기조차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야만 한다. 온라인 회의와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더 나은 비대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철저한 방역을 전제한 '대면 활동' 또한 포기할 수 없다. 코로나 시기에도 지속 가능한 대면 교육 활동을 기획해야 마을공동체 사업의 본래 목적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음은 분명하다. 초록도서관 공동체는 비영리 민간 작은 도서관인 '초록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있기에 충분히 그런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초록도서관 실내 공간을 벗어난 야외 체험 프로그램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강릉, 동해, 삼척 지역에 가족들이 소규모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체험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준비된 체험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도 코로나 시대에 기획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는 공동체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 공동체 자체의 시스템도 무척 중요하다.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각종 프로그램들로 기대하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의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는 데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엄마들의 도예 교실

지난 해부터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컨설팅 때 권면해주신 방식을 고스란히 적용시켜서 '공동체 회원'이 부담하는 연회비를 책정하였다.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공동체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구축하는 것도 앞으로의 계획이다. 지금은 핵심 공동체원들 중심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준비된다.

이제는 새로운 핵심 인력을 발굴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물을 수 있는 소통 시스템이 요청되는 시기가 되었다. 초록도서관 공동체는 그런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는 이렇게 노래한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 마찬가지로 꽃처럼 활짝 핀 마을공동체는 웃음 꽃 활짝 핀 자녀들로부터, 화목의 꽃 활짝 핀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한 순간 모두가 피어오르지 않는다. 느리고 답답한 과정을 지나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다. 우리 초록도서관 공동체는 그렇게 지금 꽃밭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05 공동체 구성원들의 “활동 소감”



위은님

초록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도서관 놀이터와 부모를 위한 강좌들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워 나가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초록도서관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보다 비슷한 나이대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온갖 고민과 걱정거리가 많기 마련인데, 비슷한 문제를 갖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마을 공동체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담님

초록도서관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했습니다. 특히 친구들과랑 보드게임 했던 것, 지구본을 만들었던 것, 또 판토마임 선생님이 오셔서 공연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학교나 집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초록도서관에서는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과도 놀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간식도 맛있어서 좋았습니다.

김배님

저희 부부는 서로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과 최대한 함께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적어진다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초록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여러 프로그램들에 자녀들을 참여 시키면서, 아이들도 많이 즐거워하고, 부모들은 잠시나마 쉴 수 있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시는 독서지도사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최0속 님**

초록도서관은 무료한 주말과 방학 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었다. 책을 읽고 나서 레고를 조립 할 때 처음에는 누나의 도움이 있어야 했지만, 해가 넘어가면 서 스스로 해내는 아들의 성장을 보는 것도 좋았다.

아이와 함께 하면 좋다는 것을 알지만, 집에서는 엄두가 안 나는 활동을 몇 년 동안 초록도서관을 통해 하다 보니 다음 프로그램은 언제 나오나 많이 기다리게 된다. 작은 도서관이지만 아이의 꿈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만한 기관이 없다. 손이 닿기 어려운 좁은 틈새까지 배려하여 준비해주시는 것에 항상 감사하다.^^

 **김0속 님**

처음에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체험 해보고 난 뒤 부터는 오히려 초록도서관에 가고 싶다고 제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료했던 주말이 신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비주얼 싱킹을 하면서 아이들과 토론하고, 그림 그리는 과정이 재밌었고, 과학프로그램이 인상 깊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주민자치회

이웃주민과 함께하는 토성라디오

📍 지역명	고성군 토성면
📅 세부활동	라디오, 팟캐스트, 마을미디어
📅 지원기간	2020년
👥 참여인원	48명

01 공동체 형성과정

주민간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매개체 필요



고성군 토성면과 토성면 주민자치회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토성면의 면적은 120.51㎢로 고성군 면적의 18.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대 및 인구는 4,103세대 7,303명으로 고성군 전체인구의 27%에 해당하며, 주민 대다수는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토성면 주민자치회는 2020년 1월 28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 현재 이정순 주민자치회장을 대표로 기획 홍보분과, 자원봉사분과, 문화예술분과, 주민복지분과 이렇게 4개 분과별로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 수 18명으로 이중 여성회원은 9명이다. 토성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토성면은 33개 리로 이루어져 있어 마을 간의 거리가 멀고, 위에도 언급한 것 같이 농업과 어업 그리고 자영업자 등 주민들의 직업도 다양하다.

또한, 귀농·귀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과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 등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만,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어 서로 소통하는 것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할 때 홍보와 사업 내용에 대한 전달이 그 사업 성공 여부의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토성면 주민자치회

토성면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화합 및 주민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했으나, 늘 홍보와 구체적 사업 내용 전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홍보와 사업내용 전달이 순조롭지 않다 보니 사업 운영과 주민 참여율 증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기보다는 토성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이 또는 토성면 주민 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가지게 되었다. 소통은 우리 단체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좀 더 넓게 개인적 소통의 문제, 세대 간의 소통 문제 등 다양한 소통의 문제가 존재하며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온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소통'이라는 문제에 많이 공감하고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의미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토성면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토성면 주민의 문화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상 하반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연말에 다음 해에 운영할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조사할 때마다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고 색다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원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가장 고민하고 있던 소통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며 토성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모임 때마다 머리를 맞대어 방법을 고민해왔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때 2018년 10월에 주민자치 전국 박람회에서 고민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02 공동체 활동의 시작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 라디오



첫 시작은 경주에서 개최된 주민자치 전국 박람회를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전국 박람회에 참여한 회원들이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야외 라디오 방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의 해결책으로 라디오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했기에 이곳저곳 발품을 팔아 도움을 구할 곳을 찾다가 제주도 남원읍 '제주살래'라는 마을미디어를 알게 되었고, 배우기 위해 남원읍을 찾아가 견학을 하였고 제주살래가 운영하는 마을 라디오 방송에도 참여하였다. 이 기회를 계기로 제주살래, 동작FM 등 각지에 마을미디어를 알게 되어 조언을 구하며 토성면 마을미디어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다.

토성면 라디오의 첫발을 딛기 위해 녹음실을 마련할 공간을 찾아나섰고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 쓰는 조그만 공간을 제공해주셔서 그곳을 녹음실로 꾸미기로 했다.



토성면 라디오 방송국

제주살래와 동작FM에 요청하여 라디오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직접 벽에 방음타일을 붙이고 마을미디어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라디오 장비를 설치하여 녹음실로 개조도 하였다. 녹음실 리모델링을 포함해 3일간 이루어진 교육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 개발, 엔지니어링 같은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범 방송 녹음까지 해보며 라디오 실전 감각까지 익힐 수 있었고, 원주 미디어 센터를 견학하여 강원도에 있는 마을 라디오와의 교류는 물론 좀 더 체계적인 마을미디어 시스템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다.

토성 라디오 홍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던 중 지역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라디오 교육을 기획하여 토성 라디오 홍보 및 주민분들께 새로운 공익적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라디오에 대한 주민 참여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다.

또한, 토성면 주민자치회에서 매년 진행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발표회에 맞춰 라디오 개국을 진행하였고 라디오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팟빵 앱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며 꾸준히 홍보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지역주민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마을공동체 라디오는 그렇게 약 1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11월 15일 개국하였다.



미디어 센터 견학



토성면 마을라디오 홍보



03 공동체 활동의 성과

“주민과 함께 하는 토성라디오” 새로운 소통의 장



현재 토성면 라디오는 토성면 화제의 인물을 조명하는 '특.수.본', 토성면 주변의 소소한 시사 이슈를 다루는 '토성 스토리온', 행정홍보 사항을 전달하는 '행복 알림방'이 3개의 프로그램과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소통하여 녹음하는 찾아가는 마을 라디오인 '반기와요! 울 모태'를 운영하며 주민분들은 물론 지역을 넘어 라디오를 청취하는 청취자들과 열심히 소통 중이다. 테스트 및 축하 방송을 포함하여 40회(2020.12. 기준) 방송을 팟빵에서 청취할 수 있다.

라디오에 출연한 덕분에 미국에 사는 친구분께서 토성 라디오를 듣고 오랜만에 연락이 왔으며, 친구분께서도 오랜만에 고향이야기, 고향이 생각나는 말씨를 들으니 행복했다는 말을 전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처음 고민했던 시간적, 거리적 제약이 없는 새로운 만남의 네트워크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라디오 마을공동체

약 30명의 지역 주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라디오에 게스트로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부터 마을을 위해 봉사하시는 이장님, 초등학교 선생님, 마을 주민분들까지 그분들의 일상을 라디오 녹화를 위해 사전에 인터뷰하고 함께 대본을 짜면서 서로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라디오를 녹음하며 함께 합을 맞추니 하나하나 소중한 이야기가 없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소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저희는 주민과 함께하는 라디오 홍보 및 지역 주민들의 공익적 문화 활동을 위해 주민참여 라디오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라디오 홍보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 건전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23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새로운 마을미디어 활동가 모색은 물론 토성 라디오가 새롭게 시작하는 찾아가는 마을 라디오 기획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코로나로 활동의 제약이 있었지만 토성 라디오는 1주년을 맞이하였고, 토성 라디오 개국 축하 방송을 하며 1년간의 서로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특색 있고 다양한 마을 이야기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마을미디어를 위해 노력하자고 서로를 다독이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2019년이 토성면 마을 라디오를 시작하는 첫걸음이었다면 2020년은 토성 라디오가 다양한 시도와 발전을 거듭하는 한 해였다.



개국 1주년 기념



04 공동체 활동을 마치며

지속가능한 소통을 위한 꾸준한 노력



2020년 마을 공동체 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토성면 라디오는 쉬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 토성면 마을 라디오 개국 전까지 대략 일 년이라는 기간 동안 빈틈없는 준비를 위해 노력했지만, 마을미디어를 본격적으로 운영해보니 코로나와 같은 생각 하지도 못했던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구성원은 물론 라디오에 참여해주신 주민분들과 서로를 다독이며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 마을미디어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걸 느낀 한 해였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끼리 고민하던 것을 시작으로 어느덧 라디오를 통해 그 고민을 함께하는 여정에 뜻을 올렸다. 이제 우리의 소통의 문제는 우리 단체만의 고민이 아니라 라디오 참여자 그리고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 이게 공동체의 힘이고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소통이라는 고민에 대한 우리만의 답을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찾아가는 마을 라디오

내년에는 지역에 있는 학교와 연계하여 라디오 동아리 개설 및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라디오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숨겨진 마을 미디어 양성가 발굴을 위해 주민참여형 라디오 교육을 시행하여 토성 라디오 홍보는 물론 지속 가능한 라디오 콘텐츠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올해 코로나로 주춤했던 찾아가는 라디오를 활성화할 예정이기도 하다. 마을 이장님과 협조하여 한 달에 한번 각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주민분들과 야외에서 녹음하여 특색있고 생생한 마을 이야기를 전달할 것이며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소통하는 “보이는 라디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과 함께하는 토성면 라디오” 활동을 통해 일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여 어쩌면 등한시했던 마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 이야기를 마을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눌 수 있어 더없이 행복한 한 해였다.



05 공동체 구성원들의 “활동 소감”



김오래 님

요즘 우리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이웃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고, 이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 낯설지 않은데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체 사업이겠지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웃 간의 소통을 목표로 마을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 접해보는 방송이라 낯설기도 하였지만 조금씩 배워가며 한 프로 한 프로 완성되어 가는 방송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걸 왜해?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요. 방송으로 인해 이웃에 관심을 두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유익한 방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큰 성과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거듭 될수록 방송에 관심을 두는 이웃이 늘어날 것이고, 공동체의식이 조금씩 살아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성마을방송국 파이팅!!!!

이이순 님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토성라디오를 진행하며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기뻐합니다.

물해는 찾아가는 라디오를 진행하며 각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을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토성라디오를 발전시키기 위해 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토성라디오가 조금씩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활동의 제약이 많아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지역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라디오 콘텐츠를 만들어 생생한 지역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성라디오를 듣고 피드백을 주는 지역주민과 라디오의 발전 및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같이”, “함께”라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마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용이열 님

마을 공동체라는 인식이 모호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라디오 방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공동체의 의미를 돌아켜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의욕적으로 라디오 사업에 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잘 시작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어져가는 이웃간의 공동체 회복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이웃들의 소식을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하고 그러한 작업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김이남 님

토성면 마을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잘 돌아가네"

대처에 나가 새로운 것을 만나야 세상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주민자치회는 현장탐방으로 2018 전국주민자치 박람회에서도 큰 눈을 땁니다.

앞서 가는 지자체 주민자치회의 마을방송사례를 보고 현장에서 느낀 감동! 와우! 바로 이거야! 주민들 간의 소통! 이것을 우리도 해보자 으샤 으샤~ 방송분과를 새로 꾸리고 수차례의 초빙강사교육과 방송국 탐방 벤치마킹, 당국의 적극 협조를 통한 개국! 드디어 "우리 마을에도 방송국이 생겼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방송실 방음벽 설치하고 MC, PD, 엔지니어 임명하고 겁없이 멤버들었던 추억들...

편집 중 녹음본 다 날린 사고, 개국 1주년 축하방송 녹음방송 사고 등 한번, 두번 넘어지고 지빠지며 실행해 나간 헛수가 벌써 3년차~ 점점 나아지는 모습. 우리가 평가해도 대견스럽습니다.

이제는 방송국 기사를 하셨던 분께 칭찬까지 듣는 수준으로 왔으니... 행정의 알뜰거리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주는 "행복알림방", 주민들의 소소한 이야기거리를 나누는 "스토리온", 동네의 이슈, 화제의 인물들을 소개하는 "특별수다본부", 직접 마을을 방문

하는 찾아가는 라디오 “반가워요 울모태” 그때 그때 마다 재미있는 얘기를 팟방을 통해 동네방네 해외까지 퍼날라 소통하니.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하는 일을 우리 마을공동체 라디오가 열일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되어있는 시기에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지역 문화 나눔과 확산시키는 "토성면 마을공동체라디오방송" 지역주민들의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토성면 주민자치회 방송분과 더욱 분발해야겠습니다.



강원도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우수사례집

즐거로운 마을생활 편집 후기





최한길 연구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우수사례집 편집 업무를 진행하며, 코로나로 인해 공동체 운영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공동체가 마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기에 공동체 운영의 성과를 얻고, 우수사례집 또한 발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집 내용 하나하나에 공동체들의 노력과 희생이 묻어나 편집하는 내내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매년 발간되는 우수사례집은 좋은 선례로 남아 향후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해주신 원주시 '마을안전서포터즈' 공동체, 본래 빵을 나누는 공동체이지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방역지침을 홍보해주신 태백시 '사랑의 베이커리나눔' 공동체의 활동에 감명받았습니다. 공동체의 역할은 위기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작성해주신 모든 내용이 너무 소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여서 많은 분이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들의 활동 내용을 참고하여 다양한 시도도 해볼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21년에도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하길 바라며, 모든 공동체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민기 연구원

코로나19와 같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 지역주민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활동한 사진들을 보면서 글보다 더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사진을 보며, 의견충돌도 생기고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은 마을공동체에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관심만으로도 주변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전달되어 마을의 변화, 나아가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활동이지만 공동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진행하는 주민들을 보면서, 우리 센터의 역할은 진심으로 주민과 지역사회를 생각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사례집에 더 많은 공동체의 따뜻하고 희망찬 이야기로 가득해지고, 책이 두꺼워지는 날을 기원합니다. 항상 가까이에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수진 연구원

점차 개인화된 사회에서 이웃과 마을의 필요성은 작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삶에 이웃의 존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개인이 마을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도 마을공동체 우수사례집 속의 13개의 공동체는 마을의 가치를 일깨워준 주역입니다. 이웃의 존재는 나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고, 공동체 활동은 바쁜 삶에 활력소 중 하나가 되어주었습니다. 마을활동가들에게 공동체 속에서의 역할은 자부심이 되어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내가 사는 곳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방역 활동을 하고, 교육 인프라를 갖추는 일, 모두 혼자 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손으로 나의 지역을 바꾸고 영향을 끼치는 것, 주민자치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이 되는 건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소통의 끈을 잡고 마을공동체를 위해 애쓰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표 표합니다.



조영일 연구원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동체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국가적 질병 재난 속에서도 마을공동체 활동과 코로나19 방역 어느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주신 강원도 마을공동체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13곳의 우수 마을공동체들의 한 해 동안에 기록들을 살펴보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을의 문제를 공동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강원도 마을이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주민 간의 유대감을 회복하고, 마을과 이웃의 필요성을 느끼는 모습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담은 우수사례집은 향후 공동체들이 활동하는데 참고가 되는 귀중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을을 위해 다 같이 힘써주신 모든 공동체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우수사례집에 소개가 되지 않은 공동체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들려주는 우리마을 이야기

즐거로운 마을생활



주민들이 들려주는 우리마을 이야기

즐거로운 마을생활



강원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Gangwon Community Support Center